

중국인 투자자 미분양 아파트 구입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땅과 리조트 등에만 투자했으나, 지난 10일 한중 FTA 체결을 기점으로 아파트까지 사들이는 등 투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영종도의 경우 투자이민제 완화와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현실화 등의 호재로 중국인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와 평창 역시 무비자 및 투자이민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중국인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11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됐으나 오랜 기간 투자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인 투자자는 지난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 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투자액은 1채에 3억5000만원씩 7억원이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이민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각종 리조트 개발사업 등 여러 호재가 맞물리면서 성사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0대그룹 상장사 절반, 올 농사 실통참네

73개 기업 중 35곳만 영업이익률 상승·흑자전환
현대미포조선 3분기 '-35.63%' 수익성 크게 악화

올해 들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수익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금융회사·보고서 미발표 제외) 73개 중 11곳이 올해 들어 3분기 말 기준 적자 지속 또는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개 기업은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상장사 10곳 중 5곳의 수익성이 악화된 셈이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거나 흑자 전환된 곳은 각각 30곳과 5곳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영업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익성 지표로 활용된다. 우선 삼성SDI·삼성정밀화학·SK커뮤니케이션즈·GIIR·현대미포조선·코스모신소재·GS건설·한진해운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전기·LG생명과학 등 3곳은 전년 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말 -5.90%로 적자 전환한 뒤 3분기 말 -35.63%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3분기 영업손실 6063억원을 기록하며 대규모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이는 총 5481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진해운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3분기 적자 기록한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률

기업명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3분기
삼성SDI	-1.46	1.18	-3.20	-2.88
삼성전기	3.38	6.83	4.65	-3.07
삼성정밀화학	5.81	4.07	-1.37	-2.85
SK컴즈	2.07	-23.80	-34.94	-19.57
GIIR	22.60	15.93	-15.38	-8.39
LG생명과학	3.09	3.74	3.78	-0.14
현대미포조선	8.57	2.77	-5.90	-35.63
현대중공업	10.51	5.13	3.03	-11.52
GS건설	4.43	1.56	-13.12	-0.18
코스모신소재	1.01	-8.26	-2.14	-7.28
한진해운	-5.61	-1.41	-3.11	-0.25

전환한 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1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2년 이후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2012년 -23.80%에서

2013년 -34.94%까지 떨어진 뒤 2014년 9월말 -19.57%로 하락폭이 다소 줄었지만 적자를 지속했다.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말 3.03%에서 9월 말 기준 -11.52%로 돌아서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삼성전기는 4.65%에서 -3.07%로, LG생명과학은 3.78%에서 -0.14%로 적자 전환했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현대하이스코·SK솔믹스·LG전자·대한항공 등 5곳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솔믹스는 지난 2011년 -8.65%, 2012년 -28.61%, 2013년 -18.52%로 3년 연속 영업이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1.42%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0.15%이던 영업이익률이 지난 3분기 2.51%로 상승했다. 조승에 기자 sysy@

키움증권 '역발상' 전략 빛났다

'현대차 ELS' 외면 속 이달만 두차례 상품 발행 10억 판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 정유·화학업종을 담은 종목형 지수연계증권(ELS)이 원금손실 우려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키움증권이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형 ELS를 10억원어치 판매했다.

해당 상품이 주목받은 것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원금손실 우려 후폭풍으로 종목형 ELS 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상품을 내놓은 키움증권, 그리고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 현대차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5일 장중 한때 15만원이 깨지면서 ELS 상품의 녹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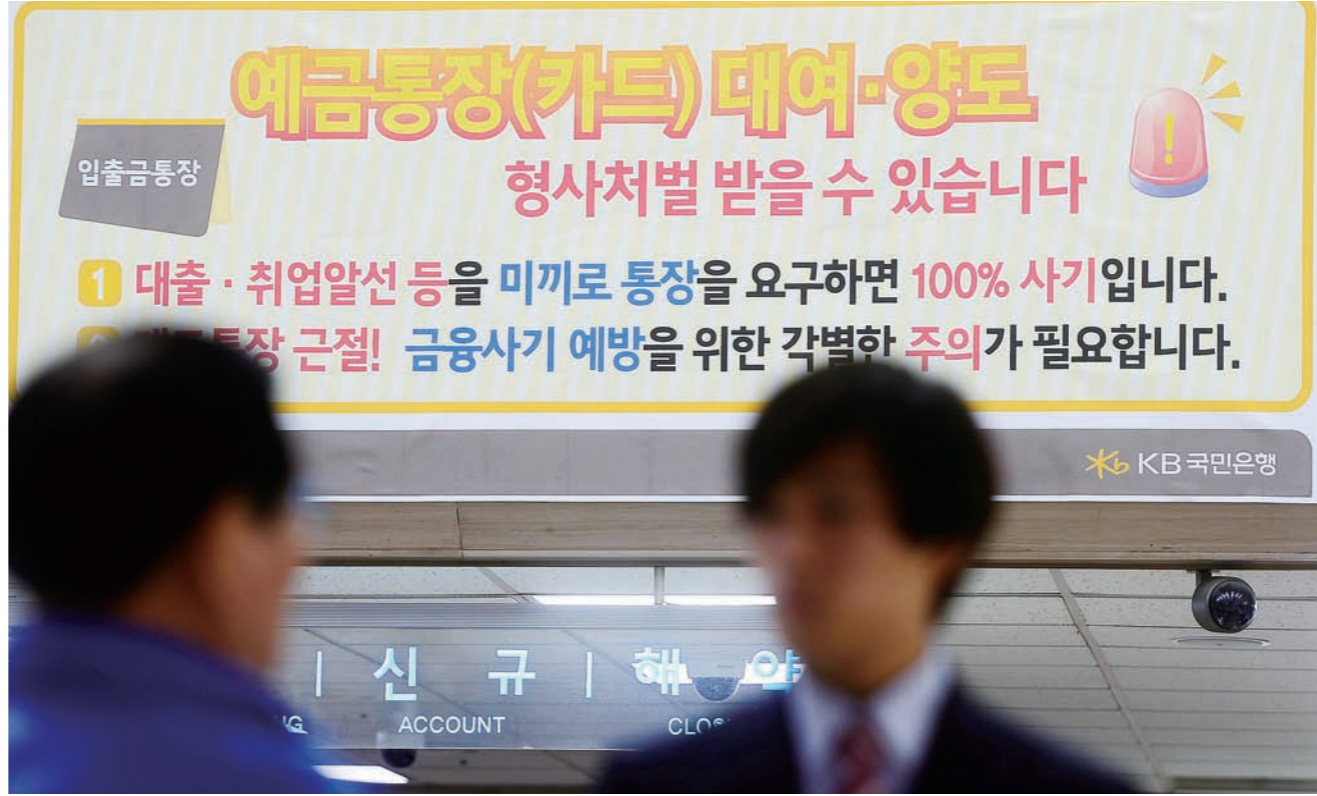
가 광배했지만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으로 주가는 17만원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때 판매한 키움증권의 ELS 상품은 오히려 적절한 투자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키움증권은 지난 21일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를 추가로 내놨고, 26일에는 녹인 공포를 겪었던 롯데케미칼을 담은 ELS를 선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11월 초 1차 발행 때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아 2차 발행을 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현대차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낮고 현대차 자사주 매입 이슈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ELS 시장 위축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LS 시장은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저금리 상황에서 ELS만큼의 성과를 내는 투자상품이 드물기 때문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D-2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둔 27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稅혜택' 빠진 증시 부양책...시장은 시큰둥

금융위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당장 시장에 효과 줄 내용없다
장기적 처방에 업계반응 냉랭

기대를 모았던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화에 궤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지

만 증권가에서는 당장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 등을 통해 경직된 제도의 과감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를 대폭 개편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통해 수급 구조 개선에도 나서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 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막상 금융위에서 내놓은 것은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처방전"이라며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오늘 오후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국내 최대 CSR 축제인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66개 기업 및 사회단체가 88개 작품을 출품해 한 달여간 네티즌 및 전문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작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6편

한국 최대 CSR 축제인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66개 기업 및 사회단체가 88개 작품을 출품해 한 달여간 네티즌 및 전문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작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6편

데이터 뉴스 Data News

'딱딱한 삶' 개인회생 신청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좌영진 기자 jy997@



'아껴야 산다' 고령층 지갑 닫았다

고령화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60대 이상 가구주의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올해 3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66.6%였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3분기(66.7%)보다 낮을 뿐 아니라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박상영 기자 sympark@

Life 목요일선 17~21면

커버스토리 겨울방학 인턴·알바

황창규 회장 ▶13 오영태 이사장 ▶21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초대형 M&A 막후서 지휘...유화·방산 세계일류기업 발판

무르익는 김승연 한화 회장 복귀론

석유화학·태양광·방산 등 사업재편...김 회장 승부수
김연배 부회장 이어 금춘수 사장 등 최측근 전면에



최근 김승연(사진) 회장의 최측근 금춘수 사장의 경영기획실장 임명에 이어 김 회장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삼성과의 빅딜까지 성사되면서 김 회장의 복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그룹은 26일 삼성그룹 측이 보유한 삼성테크윈의 지분 전량인 32.4%를 ㈜한화가 8400억원에,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57.6%(자사주 제외)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공동으로 1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주주 피인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한화가 1000억원을 삼성 측에 추가 지급하는 옵션도 설정돼 있어 한화그룹이 지급해야 할 액수는 최대 2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재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 회장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화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비상경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중요 의사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김 회장이 법원의 사 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이행한 것과 이번 인수·합병(M&A)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김 회장은 재계에서 승부수로 통할 만큼 M&A를 통해 한화그룹을 성장시켰다. 한화그룹은 1982년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현 한화케미칼)을 인수하면서 10대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김 회장은 제 2차 석유과동으로 당시 세계 석유화학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 회사를 인수했다. 한화그룹은 이후에도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2002년 인수한 대한생명

(현 한화생명)은 현재 보험업계 2위로 한화그룹 전체 매출의 50%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 여기에 지난 11월 이뤄진 금춘수 전 한화차이나 사장의 그룹 경영기획실장 인사도 김 회장의 조기 복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한화그룹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사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불러들였다. 또 그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이끌던 김연배 부회장을 한화생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부회장 역시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조조정 전문가다. 이에 '좌 금춘수, 우 김연배'라는 김 회장 측근 진용이 갖춰진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원 포인트 인사와 이번 대규모 M&A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김승연 회장의 복귀에 힘이 실린다"며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막후에서 지휘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최근 미국의 다우케미칼 등 대형 M&A를 몰색하던 한화그룹이 김 회장이 평소 강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 아래 삼성의 4개 회사를 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석유화학, 첨단소재, 태양광을 내세우고 비주력사 매각과 주력사업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세계 9위, 국내 방산·석유화학 산업 1위로 도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다. 조남호 기자 sprdn@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26일 삼성의 계열사 매각·인수를 통해 사업부문 '빅딜'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하루 뒤인 27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민항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요 고객사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도 경영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실적부진·사업재편 여파... 최대 5자리 사라질듯

삼성 사장단 인사 후폭풍

삼성종합화학 등 4개 계열사
매각절차 남아 바뀌지 않을듯
중공업 박대영·ENG 박중흠
합병 차질 빚어 거취 변화 전망



삼성그룹의 방산·화학사업 철수 결정으로 초읽기에 돌입한 연말 정기인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다음달 초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먼저 하고, 2-3일 후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숨 거쁘게 진행해 온 사업 재편이 이번 연말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무엇보다 이번 한화그룹과의 '빅딜'로 삼성테크윈 김철교 사장, 삼성종합화학 정유성, 손석원(삼성토탈 대표이사 겸직) 사장, 삼성탈레스 변승완 사장 등 4명의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 4개 계열사 매각 작업은 내년 1~2월 정밀실사와 기업결합작업 승인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번 연말 인사에서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합병에 차질을 빚은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삼성엔지니어링 박중흠 사장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장단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진행한 일련의

사업 재편 영향으로 이번 인사에서 사장단 규모가 지금보다 10~15%가량 축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사장단은 관계사들을 포함해 60여명이다. 이 중 오너가 부회장·사장 3명과 미래전략실 부회장·사장급 3명을 제외하면 55명으로 줄어든다. 재계 관계자는 "매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만큼 CEO들의 거취 변화는 당장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져도 사장들은 교체되기 마련"이라며 "이번 매각이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삼성그룹 사업구조재편 작업 일지 *출처: 업계 취재

- 2013년 7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 시작
- 8월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 결정
- 삼성SDS, 삼성SNS 흡수합병 결정
- 10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2.5% 전량 처분 결정
- 삼성디스플레이, 미국 코닝 지분 취득 결정
- 11월 에스원, 삼성에버랜드 건물관리사업 인수 결정
- 2014년 3월 삼성전자, TSSZ 지분 매각
- 삼성SDI-제일모직 합병 발표
- 4월 삼성종합화학-삼성석유화학 합병 발표
- 삼성생명-증권 조직 통합
- 삼성생명, 삼성카드 보유 삼성화학 지분 0.63% 매입
- 삼성전기·정밀화학·SDS·제일기획, 삼성 지분 처분
- 5월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 취득 발표
- 7월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으로 사업 변경
- 9월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발표
- 11월 삼성SDS 상장
-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불발
- 삼성, 삼성, 화학·방산 한화 매각

한화 배지 다는 삼성맨들 "설마설마 했는데... 충격"

100% 고용승계 합의
위로금 지급도 없을듯

"현재 역량만으로는 회사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방위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화에 양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삼성이 아닌 한화그룹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자."

26일 오전, 사내 방송이 나오자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김철교 삼성테크윈 사장 등 4개 계열사 경영진이 사내 방송 등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한 것. 이날 아침 기사를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다. 기사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삼성그룹의 방산·화학 매각이 현실화된 것이다.

삼성테크윈 한 직원은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을 오늘에서야 알았다"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탈레스의 한 직원은 "정말로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삼성의 이미지가 사라진다는 것에 직원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연스럽게 한화그룹에 넘어가게 된 해당 계열사 임직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빅딜로 삼성에서 한화로 이동하는 인력은 4개 계열사 총 7300여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직원의 삼성 계열사로 인력 전환배치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매각 조건인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 일각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화 입장에서 핵심 인력 담보가 필수기 때문이다. 매각 대상 계열사 임직원 사이에서 위로금 지급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삼성그룹 관계자는 "한화가 100% 고용승계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전환배치, 위로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訃告

本赫大人綾城具公滋明께서 2014年 11月 26日午後 8時 32分 宿患으로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殯 所 서울峨山病院 葬禮式場 二十號
發軔日時 2014年 11月 29日 午前 07時 20分
葬 地 濟州道 西歸浦市

未亡人 趙美娟
嗣子 本赫 孫女 素英
子 婦 高恩雅 外孫女 鄭柔正
壻 鄭大賢

護喪 洪錫禹
連絡處 殯所 (02) 301012631

會社葬公告

L S I N I k k o 銅製鍊(株)具滋明會長께서 2014年 11月 26日 午後 8時 32分 宿患으로 別世하셨기에 葬禮式을 會社葬으로 舉行함을 알려드립니다.

葬禮委員長 李光雨

株式會社 L S
L S 電線 株式會社
L S 產電 株式會社
L S I N I k k o 銅製鍊 株式會社
L S 엠트론 株式會社
가온電線 株式會社
株式會社 E1
株式會社 에스코

※個別 訃告는 省略하오며 弔花 및 贈儀는 鄭重히 謝絕합니다.

‘니하오 영종’..개발 호재 ‘훈풍’ 타고 中 ‘따마’ 몰려온다

〈중국판 북부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립계획

사업제인사 이포&시저스(LOCZ)

총 투자규모 2조3000억원

주요시설 카지노 및 호텔, 컨벤션, 쇼핑몰, 공연 및 전시장 등

완공시기 2023년

땅·카지노리조트 투자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사들여

한동안 해법없이 침체 속에 머물던 인천 영종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땅과 리조트 등에만 투자를 했으나,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는 아파트까지 사들이는 등 투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영종은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현실화 등의 호재로 중국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개장 예정으로 지난 20일 첫삽을 뜬 10만 평 규모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는 1단계 사업에만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건립되는 2만7000평 규모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도 개발이 이어진다. 이곳의 위치는 영종도 남서쪽 끝,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1.1km 떨어진 국제업무지구 안이다.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 합작회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33만㎡ 부지 위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 객실 711개를 갖춘 특급 호텔과 컨벤션센터,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을 지으며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카지노 리조트 투자자들은 요우커들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 국내 카지노는 요우커들로 넘쳐난다. 서울 세라타워호텔을 비롯, 부산과 제주도 등지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고객의 거의 80%가 요우커다. 이들 중 VIP고객이 올 2분기에 카지노에서 배당금 액이 약 837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홍콩의 4대 재벌그룹인 주대그룹이 미화 10억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를 투자,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6일 홍콩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홍콩의 4대 재벌그룹인 주대그룹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낸 결과다.

이와 함께 영종도에는 여러 개발 호재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외국계 반도체 회사인 스테츠칩팩코리아 공장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BMW 드라이빙 센터가 오픈하면서 인구유입, 상업시설의 발달이 이뤄지고 있다. 공항철도, KTX 개통 등의 영향도 크다. 내년 12월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인 등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집계를 보면 영종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올 10월까지 3조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이민제 신청과 한중 FTA가 영종도 개발의 신호탄으로 보고 향후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특정 지역

한중 FTA·투자이민제 시행 '신호탄'

복합리조트 개발·기업이전 등 활발 수면 밑 머물던 영종 부동산 꿈을

외국인 올 투자 6.7%는 3조 넘어 교통여건도 개선...투자 이어질 듯

“투자이민 7억 실효성 높지 않아” 업계, 5억으로 인하 요구 잇따라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대상은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에 필드장 내 빌라까지 7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F-2)이 주어지고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들도 영주자격(F-5)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 투자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되면서, 영종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

The Groundbreaking Ceremony of PARADISE CITY in INCHEON | 2014.11.20

지난 20일 인천 영종도에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이 열렸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토목공사 후 호텔, 카지노, 컨벤션, K-플라자, 스파, 부티크 호텔 등의 순으로 조성되며 201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 파라다이스시티

지난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중국인이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2채를 처음으로 사들였다.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관계자는 “리조트 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중국인 투자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며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으로 중국인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영종·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금액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높다. 이번 투자이민제 사례에서

보통 아파트 한 채로는 투자금액인 7억원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송도, 청라 등지에서는 계약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중국인 거대자본이 국내에 들어올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종 등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中 왕서방, 제주 이어 평창도 눈독

2018년 동계올림픽 호재로 관심

3월엔 알펜시아리조트 첫 분양

중국 왕서방의 손길이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평창까지 뻗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이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중국인 큰손들의 토지 개발 투자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토지 면적의 43%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중국인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한류 열풍을 타고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는 중국 자본의 유입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투자가 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상가 매입이나 영주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구입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가 6% 넘게 상승했다.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복합리조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중 출입절차가 간소해짐에 따라 여행객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제주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정부에서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중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국인들은 최근 시야를 넓혀 강원도 평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이라는 호재와 투자이민제 효과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지역은 올해 초 올림픽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2월 지정한 올림픽 특구는 평창·강릉·정선 등 3개 시군의 입지 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 기능 등에 따라 5개 특구, 11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나뉘어 개발된다. 또한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국비·민자 유치를 통해 1단계 33개 사업에 2조 11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올림픽특구 사업과 지리적으로 양양공원을 통해 중국과 가까운 장점이 합쳐져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강원도 통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1~9월) 대비 16.8% 증가한 153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국인들에게 평창 소재 복합리조트의 분양이 실시됐다. 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분양된 것이다.

분양계약을 맺은 중국인 투자자는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는 제주·인천·부산 등 국내 지역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평창 소재 부동산중개사 무소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까지 시간이 조금 있지만 특구 지정과 투자이민제 등의 효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 “올림픽 개최 시기가 다가올수록 중국인들의 진출은 제주도 못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롯데칠성음료
유동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
천연 과일향과 탄산이 만나
상쾌함을 높이고 스타일은 살린다

특! 쓰는 스파클링이 스타일까지 짜릿하게
STYLISH SPARKLING WATER **TREVI**

중소 금융지원위원회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원회'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청장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건보료 개편한다더니... 뒷집진 복지부

개선안 발표 올들어 3번 연기

김종대 이사장 퇴임에 더 늦어져

일각선 "개편 의지 없다" 비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관련 일지

- 2000년 의료보험 통합 이후 꾸준한 문제 제기
-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 복지부 건강보험 개선안 올 3월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복지부 개선안 발표 6월로 연기
- 복지부 개선안 발표 9월로 또 연기
- 현재까지 나온 개선안 없음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규정은 지나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효율적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정부는 해마다 급여기준 개선작업을 해 왔지만 제련된 건보재정 문제 등으로 불합리한 급

여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 측은 해마다 5700만건이 넘는 민원을 받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개선기획단을 연달아 운영, 논의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제성이 소득 자료를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이후 복지부는 발표 시기를 올해 3월로 계획했으나 이 역시 6, 9월로 재연기됐다. 그리고

9월이 지나 연말이 다 돼가는 데도 아직 공식발표는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선안을 전달하는 담당과 과장이 두 차례나 바뀐 뒤 현재 공식 상태로 있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개편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을 논의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한 위원은 "기획단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논의해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올 9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기획단 회의에서 소득 중심의 단일안, 현실적 소득 중심 개선안, 복지부 안을 두고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건보 개편에 대해 강력히 주장해 왔던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최근 공식 퇴임하면서 개편 작업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퇴임식 당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떠나는 자리에서도 건보료 개편에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특히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및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 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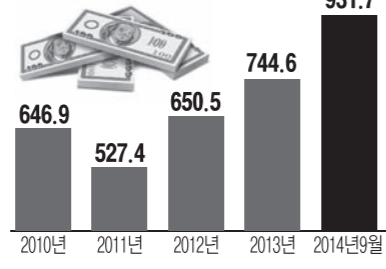
김부미 기자 boomi@

기관 해외증권투자 잔액 931억 달러

리먼사태 이후 6년 만에 최대

3분기 28억6000만 달러 ↑
강달러 영향, 증가세는 둔화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 추이
단위: 억달러 ※출처: 한국은행



올 3분기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6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그러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보험, 증권, 은행,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전 분기에 비해 28억6000만 달러 증가한 931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리먼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6월말의 952억 달러 이후 6년 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줄어들다가 2012년부터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 중 증가폭은 2분기 99억9000만 달러에서 대폭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채권은 투자 손실이 낫고, 주식은 우리나라가 주로 증권투자를 하는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EU), 홍콩, 중국 등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소폭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며 "여기에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다른 통화화 표시된 증권 가격이 하락한 것도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보면 보험사(368억 달러)가 석 달 동안 비교적 가장 큰 24억6000만 달러를 늘렸다. 증권사(46억7000만 달러)와 외국환은행(65억1000만 달러)은 각각 3억4000만 달러, 8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451억9000만 달러)는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종목별로 보면 채권투자(337억8000만 달러)가 16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인 코리안페이퍼(240억2000만 달러)도 14억1000만 달러 확대됐다. 이와 달리 주식(353억7000만 달러)은 1억8000만 달러 줄었다.

이진영 기자 mint@

"예산안 논의... 시작할까요"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부실기업 투자 책임 면제

공회회·연금·외국금융기관

2016년부터 채권단도 적용

2016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부실기업에 투자했어도 채권자로서 책임을 떠안지 않았던 각종 공회회, 연기금, 외국 금융기관 등이 채권단에 포함된다.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은

2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안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

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회, 연기금, 외국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 간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단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경상수지 32개월째 흑자

10월 수출은 8.2% '뚝'

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가 2년 8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 갔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주력품목이 10% 이상 끈두박 질지면서 5년 1개월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국제수지(잠정)' 자료를 통해 10월 경상수지가 9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3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흑자 규모는 전월의 74억1000만 달러보다 16억 달러 확대됐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의 75억1000만 달러에서 86만6000만 달러로 커졌다. 그러나 이 중 수출은 521억6000만 달러로 작년 10월보다 8.2% 감소했다. 지난 2009년 9월(-17.3%) 이후 5년 1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이는 핸드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기(-10.6%), 승용차(-14.4%), 가전제품(-13.3%)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부진한 영향이다. 내수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떠받쳤던 삼성·현대·LG 그룹의 수출 전선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2.8%)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43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진영 기자 mint@

SOC에타 '500억→1000억'

조사 대상 선정기준 강화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에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댐 및 관련시설에 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에타 조사를 실시하게끔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에타 대상 기준은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각 1999년과 2006년 도입돼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온 기준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물가 50% 증가하고 재정 규모는 142.1% 늘어난, 에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미영 기자 bomnal@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이 26일 제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중앙회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제주도 '사랑의 집수리'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이 26일 제주를 찾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농가희망봉사단은 이날 조천·구좌지역 독거노인·장애인가장·한부모가정 등 여섯 농가를 선정해 창고·교체·전기설비 보수·교체, 싱크대 등 부엌시설 정비·외벽도장·옥상방수·도배 등의 봉사를 나섰다. 또 마을에는 냉장고와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안전총무부 소속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2005년 결성된 이후 지

금까지 464농가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날 지역 출신 김우남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집수리 봉사활동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집수리 혜택을 받은 동복리에 사는 한 할머니는 "올 겨울 온수를 맘껏 사용할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으로 마당에서 관계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자동 상정 예산부수법안 포함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최대 30% 범위 내 조정 가능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미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

과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야당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수정안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데 이어 오는 2016년부터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최대 30%까지 담뱃세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담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예가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

(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107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물가와 연동키로 한 세목은 개세세를 제외한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3가지다. 금액으로는 2291원이며, 매년 최대 687원까지 정부가 인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를 굳이 최대치로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과의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에서 △2017년 4774원 △2020년 5271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중 기자 zerg@

법인은 한보철강, 개인은 이성구씨 1위

(423억)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대표, 424억)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98명 공개

1년 5억이상 대상... 송자현 라자가구 전 대표 233억 안 내 해외계좌 미신고자 1명... 조세포탈 유죄판결 표순중씨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과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51)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표순중(62)씨 등 2명과 234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 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도 일반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 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

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는 오르지 않는다.

개인 가운데서는 도소매업인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대표인 이성구(38)씨가 종합소득세 등 424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대근(50)씨, 가구업체 ㈜라자 송자현 전 대표도

부가세 등 377억원, 233억원을 각각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공업이 부가가치세 등 4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1997년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당시의 세금이지만 그동안 회생절차에 진행 중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어 ㈜뉴상현건설(대표 최규철, 체납액 255억원), ㈜라자(대표 장유미, 체납액 234억원),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대표 이성구, 체납액 19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된 표순중씨(62, 필동품 중개업)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청결속상사를 설립한 뒤 거짓 증빙, 소득 조작 등을 통해 9억 4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10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김경철(46, 고물상업)씨는 장현금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8억7900만원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2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은 지난해 2598명에 비해 200명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체납액도 4조 1854억원으로 지난해 4조 7913억원에 비해 6059억원 줄었다.

공개 대상에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한편,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728명, 법인 6792곳 등 총 1만752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 재산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명단공개를 통해 조세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은행·손보·생보·통신·병원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도입

행자부, 협약 체결 주민번호 무단처리 근절 관리부실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법적 규제 외에 자율규제가 도입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대표 사업자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곳이다.

이번 협약에서 이들 5개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관행 근절 △관리 부실 개인정보 삭제 △종사자 교육·홍보 노력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각자에 적합한 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합쳐 38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감독에 더해 업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자율규제 운영의 근거와 세부 사항을 담은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업계가 먼저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특정업체 거래 강요 교촌치킨에 시정명령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 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이 업체는 2010년 10월~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났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다렸다...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온라인직접구매자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현대카드 전산오류로 15억 이중 결제

고객 1300명 피해... 환불 처리

현대카드에서 전산 오류로 카드 대금이 이중결제되면서 1300명이 넘는 고객이 피해를 입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카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결제대금을 즉각 환불 처리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고객 1364명의 계좌에서 약 15억원이 넘는 카드 대

금이 이중으로 결제됐다.

피해를 본 고객은 카드결제 계좌를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설정해놓고 카드 결제일을 매달 24일로 지정해둔 고객들이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CMA 계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데 결제일이 24일 정상 인출된 것을 내부 전산시스템이 읽어내지 못해 26일 다시 인출했다"면서 "바로 환불처리해 고객 계좌로 입금

금을 완료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한 피해 고객은 "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카드사들은 심한 독촉을 하면서 반대의 경우엔 보상이 없다"면서 "이중 출금된 사이 보관했던 돈의 일정 부분의 이자를 기업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윤희 기자 ellee@

모뉴엘서 뒤틀린 받은 혐의 무역보험공사 부장 체포

1조원대 매출 조작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공사는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대출 과정에서 모뉴엘과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이날 오전 모뉴엘로부터 뒤틀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허씨는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 외에도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 퇴직한 이모(60) 전 무역진흥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본부장 역시 모뉴엘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한편 모뉴엘의 보증업무 담당하던 정모(47) 전 영업총괄부장은 지난해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사표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정씨는 2009년 무보에서 모뉴엘을 담당하는 전자기계 화학팀장으로 근무했다.

최영길 기자 jyg97@

쓰레기 처리 대행료 부당청구해도... 인건비 과다계상해도...

기초 지자체, 관리감독 '수수방관'

작년 173곳중 42곳만 예산절감... 119곳은 10년간 장기계약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업체의 위법·부당 사례가 겹쳐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다.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

집·운반 소요비용 1조4000억원 중 대행료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권익위는 부산의 한 자치구 등 5개 기초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원을 부당청구해 쟁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혜는 기자 euna@

농협계좌 1억2000만원 텔레뱅킹 인출 사건 금감원 "석연치 않다" 검사 착수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합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이모씨(50)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텔레뱅킹을 통해 모두 41차례에 걸쳐 최대 약 3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이 15개 대표통장으로 나누어 송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유근 기자 hura@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고,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리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0일 대표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채 수사를 종결했다.

농협 측은 "내부에서 이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부가 저장된 시스템의 메인서버가 해킹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은 현재 정밀조사에 중이 다.

평택육아지원센터 부설 어린이집 조리사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모집직종	단체급식조리사
모집내용	어린이집 주방 급식 및 간식 조리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여성

치하고 있다. 인근 전철역은 수도권 1호선 평택역이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 이 제공된다. 유혜는 기자 euna@

어느 대학 보낼까



수능 복수정당 인정으로 진학지도에 혼란을 겪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열린 '대입 정시 대비 교원 진학지도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한 진학담당교사가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사회로 열린 기업’ 한편 한편 감동드라마



CSR Film Festival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66개 기업·단체에서 88개 영상 출품
선전성 대사이상 질환 아동 지원
시각 장애인 그림해설 등 주목 끌어
소재 다양해지고 작품성도 향상
CSR모범사례 공유의 장 자리매김

“CSR 활동이 점차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량을 동원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영상의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CSR 활동의 내용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대폭 강화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올해 출품작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CSR 활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필름페스티벌에는 66개 기업과 단체에서 88개 작품을 출품했다. 대회위원회는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기업, 금융, 일반 등 3개 부문에 걸쳐 우수 작품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대회위원장상, 현장에서 본 올해의 필름상 등을 수여한다.

올해 출품작들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펼치는 CSR 활동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단순 기술 분야에서 탈피해 바리스타, IT분야 등 다양한 범위로 넓어졌다. 또한 개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환경 캠페인, 선전성 대사이상 질환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

한 그림해설 오디오북 등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CSR 활동이 돋보였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오비맥주, BMW코리아 미래재단, 더블에이인터내셔널네트워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등의 동영상들은 CSR 활동의 소재 측면에서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더블에이인터내셔널네트워코리아의 ‘PLANT PLAY, 자투리땅 초록으로 물들다’는 서울의 자투리땅을 가꾸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2만여명의 서울 시민과 함께 자투리땅을 찾은 8000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는 과정을 소개했다. 심사위원들은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CSR 활동을 영상으로 통해 훌륭하게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아직 CSR을 자선활동에 국한해 이해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외국계 기업들의 CSR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의 활동도 만만치 않았다. LG 그룹이 출품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선물합니다’는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민들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나서고, 몽골에서 양묘장과 주민교육장 건립 등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또 삼성전자가 서울에서 투폐까지, 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영상은 해외봉사단의 활동 영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줬다.

금융기업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의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학생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의 ‘2014 그 따뜻한 나눔의 현장’은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가 눈에 띄었다.

올해 필름페스티벌 출품작 가운데는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유난히 돋보였다. 사회적기업 시리얼컴퍼니가 내놓은 ‘가족은 함께입니다’는 CSR 활동에서 익숙지 않은 가족이란 테마를 잘 녹여냈다고 평가받았다. 에이컴퍼니의 ‘미술의 새바람, 브리즈 아트 페어’도 소재 면에서 매우 참신했다. 블루에그가 출품한 ‘라이프업, 세상을 밝히는 소셜 네트워크’는 SNS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설득력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비영리기구들도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주목 받았다. 사단법인 씨즈의 ‘보라(Bora)-윤리적 소비 촉진 캠페인-청년의 건강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란 동영상은 일부 심사위원으로부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로 잘 만든 작품이다. 짧지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극찬을 받았다.

윤철규 기자 yoonck@

심사위원단

“높아진 퀄리티 만큼 심사는 더 간간하게”

올해 CSR필름페스티벌 출품작에 대한 심사는 더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진행됐다. CSR 활동은 물론 영상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출범 첫째와 지난해에는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우수작들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장관상과 대회위원장상 등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심사위원단 심사와 병행해 전체 출품작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네티즌들의 관심

을 반영하는 온라인 투표 결과는 심사위원단 심사에 일정 부분 반영,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한 것이다.

올해 심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CSR 필름페스티벌에 출품된 영상들이 단순한 기업 홍보영상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도 규모가 큰 기업이나 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뛰어난 영상미를 갖춘 작품에 점수를 주기보다는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해당 활동으로 세상을 어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이지현 테이블포투 대표, 김기덕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캐서린 스미스 미국 BCCCC 소장

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더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2012년 76개, 2013년 89개에 이어 올해도 88개 영상이 출품돼 경쟁은 치열했다. 올해 필름페스티벌의 심사위원장은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이 맡았으며, 심사위원으로 국

회 CSR정책연구포럼 위원장을 맡고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지현 테이블포투 대표, 김기덕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캐서린 스미스 미국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BCCCC) 소장 등이 참여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2014 CSR 필름페스티벌 참가 기업

기업부문	
가이자동차	Surprises Make Surprises
대블에이인터내셔널네트워코리아	PLANT PLAY, 자투리땅 초록으로 물들다
대교	교육재능나눔캠페인 - 희망우울장애아동케어센터
대상	2014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대우조선해양	따뜻한 기업과 동행 - 대우조선해양
매일유업	"아름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 선전성 대사이상 환자에게 관심을"
삼성전자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한 이야기
삼성전자	"Brazil ta bom(따봉) 이야기 (나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
삼성전자	서울에서 투폐까지,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삼성전자	Shiny School Project in Malawi
삼성전자	아이들의 꿈과 함께 하는 '나눔 빌리지'
삼성전자	방글라데시 자한푸루에 희망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열정의 그녀들! 리턴링 바리스타가 돌아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드는 희망의 커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빛을 담은 화장품 공병,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추다.
유한킴벌리	액티브시니어 캠페인
오비맥주	건강을주캠페인 패밀리 토크
제일모직	'기부를 소망하다, 하티스트' 줄리안편
제일모직	'기부를 소망하다, 하티스트' 장위안편
태광그룹	그를 멘토링 봉사활동
포스코에너지	바다의 거울이야기
한국맥도날드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교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한화	한화 태양의 숲(1부) - 공해도 고갈도 없는 새로운 숲
한화	한화 태양의 숲(2부) - 중국 남사 사막화 방지 숲
현대모비스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과학, 주니어 공학교실
BMW코리아 미래재단	모바일 주니어 캠페인
BMW코리아 미래재단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LG	LG를, 어둠을 밝히는 빛을 선물합니다
네일솔라 프로젝트	네일 솔라 프로젝트
SK 네트웍스	디지털러지 (지구촌 행복나눔기)
SK C&C	평범해서 행복한 이야기 'TI'를 통해 만난 새로운 행복'
SK하이닉스	메이시스트 형진이의 꿈
SK하이닉스	어느 날 찾아온 우리가족 행복 선물
SK하이닉스	충원, 충원의 플랫폼 사랑 이야기
오비맥주	오비맥주 패밀리룩
금융부문	
농협은행	모두를 위한 행복한 금융
삼성화재	2014 삼성화재 임직원 DREAM 프로젝트
알리안츠생명보험	2014 그 따뜻한 나눔의 현장
외환은행	희망의 빛을 밝히는 나눔
푸르덴셜생명보험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하나금융지주	2014 모두해나가기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제5기 KRX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2013 KRX국민행복재단 사회공헌사업
한국씨티은행	2014 한국씨티은행 해버타트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전하는 따뜻한 나눔
KB금융그룹	어르신들에게 희망과웃음을 전합니다. KB저축은행봉사활동 대장정!
KDB 대우증권	관할기대라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표정'
LG손해보험	필리핀 연마의 꿈
일반 및 학생부문	
기브트래블러(GIVE Traveller)	기브트래블러(GIVE Traveller)
공감놀이터	공감놀이터
참좋은 봉사	참좋은 봉사
자립을 실현하는 임팩트 기부	자립을 실현하는 임팩트 기부
LG, 러브지니	LG, 러브지니와 세 가지 소원
미리내	"나눔수록 커지는 행복, 내가 먼저 미리내"
블루에그	라이프업, 세상을 밝히는 소셜 네트워크
블루에그	라이프업, 나의 작은 노력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비카인드, 삼성카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소셜통	소셜통
소셜통	소셜통 사이트 소개
시리얼컴퍼니	가족은 '함께'입니다.
꿈 프로젝트	꿈 프로젝트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자.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자.
Love Lane-우리들의 이야기	Love Lane-우리들의 이야기
보라(Bora)/ '청년의 건강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보라(Bora)/ '청년의 건강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다 seeker's 탐방단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다 seeker's 탐방단
미술의 새바람, 브리즈 아트페어	미술의 새바람, 브리즈 아트페어
직장인은 놓고 싶다	직장인은 놓고 싶다
함께하는 세상 유다케어 나눔 이야기	함께하는 세상 유다케어 나눔 이야기
나눔의 잠재력	나눔의 잠재력
너는 혼자가 아니라! 생명 사랑 밭길 걷기	너는 혼자가 아니라! 생명 사랑 밭길 걷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밥이저씨	나는 밥이저씨
우리 또 하나의 추억	우리 또 하나의 추억
즐거움 속의 추억 배움	즐거움 속의 추억 배움
베네나들이 천연염색체험	베네나들이 천연염색체험
자급, 만나려 갑니다.	자급, 만나려 갑니다.
참준을! 달동네와 함께하다.	참준을! 달동네와 함께하다.
콘서트 인팩트 비즈니스 홍보영상	콘서트 인팩트 비즈니스 홍보영상
크레파스 팩토리의 행복한 초록이야기	크레파스 팩토리의 행복한 초록이야기
술과 아이들의 이야기	술과 아이들의 이야기
Plant for all	Plant for all
나눔으로 성장한 희망에너지 3기의 이야기	나눔으로 성장한 희망에너지 3기의 이야기
문화는 나누는 따뜻한 이웃	문화는 나누는 따뜻한 이웃
Spreading Happiness through music	Spreading Happiness through music
My Story for Tanzania (인간중심 비즈니스 워크숍: '책임'의 이야기)	My Story for Tanzania (인간중심 비즈니스 워크숍: '책임'의 이야기)
작은 기적을 만드는 상상협력프로젝트, 미라클마케터	작은 기적을 만드는 상상협력프로젝트, 미라클마케터

기업 문서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YES.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기업 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기업의 각종 IT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문서 중앙화로 문서의 보안을 강화 함으로써, 소중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문서 및 데이터의 유실·유출을 방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안전한 문서 관리 방법, 더존과 상의하세요

www.duzon.co.kr

#혁신적 기업환경 IT솔루션

더존 기업클라우드

클라우드를 통한 문서중앙화

클라우드를 통해 사내 문서를 집중 관리할 수 있고 문서 별 권한이 지정되어 문서보안 또한 강화됩니다.

- 생성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를 기업 전용 클라우드 센터에 저장, 기업의 지적 자산 축적 및 활용
- 기업의 중요 문서, 고객 정보까지 사용자 별 권한에 따라 접근 제한

문서의 Life Cycle 관리

문서의 생성부터 유통의 흐름까지 한 곳에서 통제되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 파일의 생성부터 수정·복사·이동·삭제 등 Life Cycle 감시
- 이동형 저장 장치 및 온라인, 프린터 사용까지 모두 통제 관리

문서 자산의 효과적인 축적 및 이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기업의 지식 및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축적합니다.

- 사내에 분산된 데이터를 집중화하여 업무 속도와 생산성 향상
- 문서중앙화 관리나 스마트워크를 위한 추가 솔루션 구축 없이도 동일한 효과

1688-5000

더존 DUZON
Your Business Infra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 김병현 LIG손보 사장 이경로 한화생명 부사장

금융권 요직 장악하는 '서금회'

〈서강대금융인회〉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내정·이광구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부상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대표 멤버
차 대통령 동창... 최근 금융 기관장 인선 놓고 관치인사 논란

“서, 서, 서”, “하늘에는 태양, 땅에는 서강, 서강에는 서금회”. 최근 금융권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서금회(서강대금융인회)의 견배사다. 이른바 대통령의 동창인 서강대 출신 금융권 인사들의 모임인 서금회는 논란의 핵심인 만큼 구호 또한 ‘금융권에서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은행 차기행장 후보로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개인고객담당 부행장이 급부상하면서 서금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4개월간 공석이었던 KDB대우증권 신임 사장에

는 홍성국 리서치센터장 겸 부사장이 내정되면서 서금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대우증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증권 모두 행장과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서금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인선을 둘러싸고 비밀-정실 인사 논란이 분분한 금융권에 박근혜 대통령 출신 대학 인물들이 힘을 받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 정권 초기 서금회 출신인 홍기택 산은금융지

주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되면서 금융권에서 서금회의 위세가 날달랐다. 이후 연세대와 성균관대 출신들이 금융권 요직을 차지하면서 서금회 위상이 다소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금회는 이미 금융권에서 각 금융회사 임원으로 진출해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금회 회장은 이경로 한화생명 부사장이다. 최근 국민은행 행장 대행을 지낸 박지우 부행장은 7년 동안 서금회 회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 김병현 LIG손해보험 사장,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 등도 서금회의 대표적인 멤버다. 다음달 초 차기 행장을 내정할 우리은행에서 이광구 부행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차기 행장으로는 우리은행 출신 인사 5-6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순우 현 행장의 연임이 유력했다. 그러나 현재 차기 행장 내정설이 우리은행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관의 실질적 지배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전 정권에 이어 학연인사로 인한 금융산업의 후진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철우 기자 acw@

KB금융 부분검사...LIG손보 인수 분수령

금감원, KB 지배구조·경영능력 점검
내주부터 2주간...결과토대 승인결정

금감원(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에 대한 부분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데 부적합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내달 금융위원회의 LIG손보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감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중 감독총괄과 일반은행감독국을 중심으로 감사팀을 꾸려 검사계획을 확정하고 내주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부분 검사에서 KB금융의 현 지배구조가 LIG손보를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회사 관리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KB금융이 제출한 인수계획서를 토대로 KB금융과 LIG손보의 경영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부분검사는 2주 정도 진행되며 검사

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말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을 전제회의에 상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재운 위원장은 지난 25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승인 여부에 대한 국회답변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니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는 금융위를 개최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B금융의 경영관리 능력과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승인심사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KB금융은 지난 6월 인수경쟁 끝에 LIG손보의 우선 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LIG그룹과 LIG손보의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 금융위에 승인심사를 요청했다. 당초 10월쯤 승인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전산기교체를 둘러싼 임명권 전 KB금융 회장과 이견으로 전 국민은행장 간 갈등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김민지 기자 kimji@

“단체로 누가 들까”...보험사 ‘난임보험’ 외면

“가임 기업 드물 것” 상품 준비 현대해상뿐

금융당국이 난임진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지원 하겠다며 ‘난임(難妊)보험’ 도입 추진했지만 상품 개발, 판매해야 할 보험사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난임보험이 과거 다른 정책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내로 난임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2008년 16만 명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5년간 17.8% 증가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을 보장해 주는 난임 단체보험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 가운데서는 현대해상만이 유일하게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담보만이 제공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반면 다른 보험사들은 난임보험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품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임보험은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나설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 중 임직원의 난임·불임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복리후생으로 난임보험을 가입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시장 환경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난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현 기자 nls118@

“IC단말기 교체 기금 1000억, 증여세 내야”

절반인 500억 세금 폭탄... 업계 대책마련

카드업계가 영세가맹점의 집적회로(IC)단말기 전환 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IC단말기 전환 사업을 추진중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법인세법상 증여세가 없는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신협회는 “개별 카드사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증여세를 피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성이 강한 IC단말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약 1000억원의 기금을 거둬 65만여개 영세가맹점의 마그네틱(MS)단말기를 보안성이 강화된 IC 단말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박원리 기자 ellee@

신한금융, ‘핀테크’ 이끌 모바일 마케팅 경연

스마트 이노베이터스 2기 연구과제 발표회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에 발맞춘 모바일 채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 스마트 이노베이터스(Shinhan Smart Innovators, SSI) 2기는 전담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연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회사의 마케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에 발맞춰 모바일 채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영업점 안팎의 고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비콘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성 및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었으며 미래 고객인 젊은 세대의 관심, 활동범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점포·리운지 운영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2012년 출범한 SSI는 급변하는 스마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은행, 카드, 금



소재관 신한금융 부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신한 스마트 이노베이터스(SSi) 2기 및 스마트금융 관련 직원들이 26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연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융투자, 생명, 데이터시스템 등 그룹사의 스마트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인재 조직이다. 올해 3월 출범한 SSI 2기는 통사, 인터넷 포털, 제조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뿐 아니라 금융 및 IT 전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장 인력과 전문 인력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객관점에서 스마트금융 서비스를 체험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스마트금융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imji@

[희망은 자란다]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일상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금 지급 및 보상 처리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금 금융상품의 해당한 금액(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정) 최고 5천만원(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LG그룹, 오늘부터 정기 임원인사 조준호-하현회 사장 등 '교차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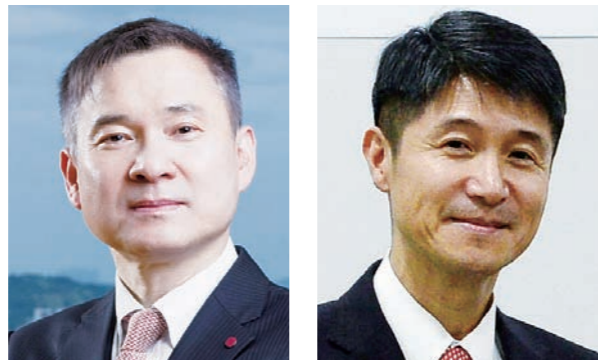
조, MC사업본부장
하, (주)LG 사장으로

LG그룹이 27일부터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이날 가장 먼저 지주회사인 (주)LG를 비롯해 전자 계열사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사장단-임원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LG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한다. LG전자 등 다른 계열사들은 전담 이사회를 개최했다.

에초 재계는 LG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올해 경영실적을 선방한 만큼 소폭의 인사를 예상했지만 일부 최고경영자(CEO)의 개인 사정과 조직 쇄신 차원에서 대규모 교체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번 인사에서 (주)LG 조준호 대표이사 사장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담당인



하현회 사장

MC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조 사장은 2002년부터 5년간 LG전자 북미사업부를 맡아 휴대용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모바일 부문 마케팅의 폭넓은 경험이 있다. 조 사장은 4년 만에 현장 사업부로 돌아간다.

조 사장의 자리에는 하현회 LG전자 HE(휴먼터미널) 사업본부장(사장)이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2012년 (주)LG 시너지팀장(부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하 사장은 작년 말부터 TV 사업본부장을 맡아 세계 최초로 올레드 UHD TV를 개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냈다.

스마트폰 사업을 맡아온 박종석 MC사업본부장(사장)은 건강 문제로 본부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전략스마트폰 G3를 비롯해 G시리즈를 북미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스마트폰 사업 실적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으나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자리로 이동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전자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

부문을 맡은 조성진 HA(홈플러스) 사업본부장(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유임이 유력하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UHD패널 시장에서 대만 업체를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또 주 고객들이 중대형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10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부사장은 유임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올 초 이회백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LG상사를 이끌었다. 이 대표가 물러나 이후 단독 대표 이사회를 수행했다.

한편, LG하우시스, LG화학,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다른 계열사들은 다음주 초까지 줄줄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말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LG그룹은 인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호진 기자 js62@

금호타이어 내일 '운명의 날' '워크아웃 졸업' 첫 실무회의

다음달에 최종 결정날 듯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여부가 다음달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2010년 1월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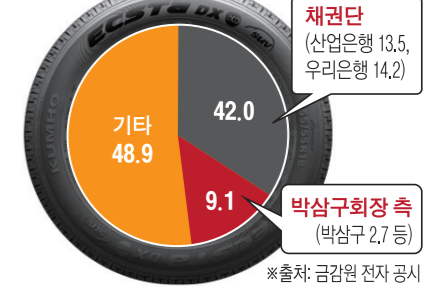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첫 실무회의를 가진다. 이번 실무회의는 이날 금호타이어 실사를 진행한 뒤 워크아웃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첫 회의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결과 점검과 함께 채권단 간에 이견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2조6000억원, 영업이익의 277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11.2% 늘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채권단 일부에서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미심쩍게 보고 있는 것은 변수다. 채권단 측 고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최근 워크아웃을 연장한 금호산업의 지분도 매입해야 한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금호타이어의 지분도 단번에 매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호타이어 지분 보유 현황전망
단위: %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금호산업처럼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이 될 수 있다. 채권단은 최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했다. 다만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57.6%를 모두 매각하면 워크아웃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금호산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채권단 측은 금호타이어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은 9.1%를 확보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가진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 첫 회의가 열리는 28일 서울로 상경해 집회를 여는 것도 변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LG '창조경제박람회' 참가



LG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창조와 융복합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LG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친환경 에너지솔루션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CJ오쇼핑, 3회 연속 '서울패션위크' 후원

신진 디자이너 작품 론칭

CJ오쇼핑은 'CFDK 2014 F/W' 상품을 론칭하며 신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K패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27일 CJ오쇼핑에 따르면, 이회사는 지난해 5월 CFDK와 5년간 신진 디자이너 5000여명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3회 연속 서울패션위크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시즌에는 해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계한희, 권문수, 허한 디자이너 컬렉션 작품을 론칭했다. CJ오쇼핑은 이들을 통해 올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년 내 연간 200억원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4 F/W CFDK 브랜드 상품은 모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량 제작된 것으로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계한희와 권문수 디자이너의 작품은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시반에 각각 방송됐고, 허한 작품은 12월 2일 유난 회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5일에 소개한 첫 방송에서는 계한희 디자이너의 '카이웁스'의 예코퍼 롬코트와 하이비 풀오버 제품이 한 시간 만에 1만8000세트가 팔리나가며 주문금액 1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권문수 디자이너 '문스트릭션'의 'Key of Hope' 컬렉션 코트는 한 시간 방송에서 주문금액 4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CJ오쇼핑 패션사업본부 강형주 상무는 "역량 있고 감각적인 신진 디자이너 작품들을 선보여 홈쇼핑 패션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며 "신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패션 사업을 강화해 기존 30% 후반대였던 패션 취급금 비중을 올해 4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isa@

'중국산 보일러' 저가 공세 어쩌나

'한·중 FTA'로 관세 철폐... 국내업체 "가격 경쟁력 더 떨어져" 울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국내 보일러 업계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기존 8%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키운 초저가 중국산 제품들의 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가격 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 타결로 보일러·운수기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있는 민간, 양허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보일러는 향후 FTA 정식 발효 시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보

일러·운수기 제품들은 기존에 부담했던 8%의 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가격이나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향후 FTA 발효 이후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국내 업계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보일러업체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저가 수주문제로 많은 업체들의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적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최근 같이 국내 보일러 업계의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혼란은 균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성 문제도 거론됐다. 품질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들로 인해 화재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보일러업체 관계자는 "저가형 저품질 제품들은 화재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산 현지 브랜드의 경우 안전성 문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10%도 철폐되기 때문에 국내 업계로서도 일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바일런트 등 글로벌 보일러 업체들이 생산설비까지 두고 포진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틈새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각에선 한·중 FTA 협상 준비 과정에서 보일러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유 기자 thec98@

'배달의 민족' 골드만 삭스서 400억 투자 유치

골드만삭스가 국내 음식 배달 모바일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 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7일 골드만삭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400억원(약 36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배달의 민족이 추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를 토대로 한 배달 시장 선점 노하우와 모바일 플랫폼은 물론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처음 선보인 배달의 민족은

국내 대표 모바일 배달주문 플랫폼으로 성장해 현재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400만 건, 배달 가능한 전국 영업점은 14만500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0월 모바일 메신저 라인

과 손잡고 합작법인인 '라인브로스'를 설립하며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라인브로스가 출시한 프리미엄 음식배달 앱 '라인 와우'는 일본에서 5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라인을 통해 도쿄 시부야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 6곳이 개발한 프리미엄 도시락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모바일 배달 서비스 시장 진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코엑스몰이 1년 8개월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27일 재오픈한다. 센트럴 플라자 내부 모습이다.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자라흙 등 국내 첫 임점
스마트폰 앱 매장안내도

지하 복합쇼핑몰 코엑스몰이 14년 만에 넓은 때를 맞이하며 더지고 새 단장을 마쳤다. 26일 재오픈 하루 전날 찾은 코엑스몰은 새롭게 손님을 맞을 준비에 매진한 모습이었다.

지난 1년 8개월 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코엑스몰은 센트럴라이브빌 레니움·아센·도심공원 플라자 등 총 5개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코엑스몰에서 가장 중심이 될 장소는 센트럴 플라자다. 이곳은 자라흙·베르사제진·버버리 뷰티박스 등 국내 최초 임점하는 3개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다. 최근 복합쇼핑몰이 재확장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가운데 코엑스몰이 차별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브랜드들이다. 매장 관계자는 "총 300개 브랜드가 임점, 현재 90여개 브랜드가 먼저 오픈한 상황"이라며 "그랜드 오픈 일에는 전체의 90%가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센플라자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9호선과 연결될 계획이며 도심공원 플라자는 도심공원 터미널과 연결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라이브 플라자의 나무계단이 있는 공연공간은 누구에게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직선의 드넓은 복도 공간과 지하의 5개의 플라자가 하나로 연결된 점이다. 코엑스 측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짧은 여마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복도를 넓게 만들었으며 이동 편의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IT를 활용한 쇼핑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사람들은 코엑스몰 내에서 위치 기반서비스(LBS)를 적용한 '마이코엑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작동하면 원하는 매장까지 동선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비콘 기술을 각 매장을 지날 때 할인상품에 관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1-2개월 후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코엑스몰은 최근 문을 연 롯데월드몰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다. 박문수 한국무역협회 뉴코엑스몰준비본부장은 "롯데월드몰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삼성역과 잠실역 인근이 새로운 문화·쇼핑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포스코ENG '금속 제련 플랜트' 뚫었다

칠레 3000만달러 귀금속 회수 플랜트 수주... 첫 기술 수출
제련 기술력 확보... 비철금속·소재 '신시장 확대' 기반 마련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국내 기술로 건설한 귀금속 회수 플랜트를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기업 LS니코동제련과 세계 최대 구리 생산기업인 칠레 국영 구리회사 코델코(CODELCO)의 합작법인 PRM과 칠레 귀금속 회수공장 건설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의 EPCM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작법인 PRM은 LS니코동제련과 코델코가 각각 66%와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칠레 메히요네스(Mejillones) 지역에 총면적 10만㎡ 규모의 귀금속 추출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구매, 시공관리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귀금속 추출공장은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연간 금 5t, 은 540t, 셀레늄 200t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코델코가 칠레의 자사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라임(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귀금속을 함유한 점진물)을 공급하면 귀금속 회수 플랜트의 정련 과정을 거쳐 슬라임에 포함된 금, 은 등 귀금속을 분리해 회수하게 된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금속 제련 관련 기술력 확보, 비철금속·소재 제련 관련 사업 등 신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로 만든 귀금속 회수 플랜트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모로코 인광석 이송장치 설치공사, 베트남 노키아 휴대전화 생산공장 신축공사, 말레이시아 종합병원 신축공사 등 해외 산업 플랜트 분야에서 쌓아온 우수한 설계 기술력과 시공능력 등 EPC 수행능력이 이번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S니코동제련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 기업이다. 또 칠레 국영 구리회사인 코델코는 세계 동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메이저 비철금속 기업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톤의 구리를 생산하고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10%를 관리·운영한다.

박태진 기자 tipjippo@

내달 전매제한 1만가구 해제 세종시 웃돈 최대 5000만원

전국 14개 단지 수도권 5천가구
위례 아이파크2차·힐스테이트
세종시는 모아미래도 등 주목

지난 6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공공택지는 1년)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다음달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가구 수가 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중 전국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14개 단지, 1만899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217가구 △광역시 3곳, 1947가구 △세종시 등 지방도시 3곳, 2925가구 등이다.

12월 전매제한이 풀리는 곳 중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 가운데 3개 단지가 분양된 지 1년 만에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위례아이파크2

차와 송파힐스테이트, 사람으로부영(창곡동)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닥터아파트는 추천했다.

세종시에서는 소담동 3·3생활권에 위치한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흥흥S-클래스 리버뷰로 모두 12월 16일 이후로 합법적 전매가 가능하다.

프리미엄은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 800만~1000만원, 97㎡ 1000만원선 △흥흥S-클래스 리버뷰 전용면적 84㎡ 1000만~1500만원, 98㎡ 1500만~2000만원선, 109㎡ 4000만~5000만원선 등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물량이 눈에 띈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진아리채, 호반베르디움 2개 단지가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권역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뺏다방 거품이 사라진 뒤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입주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면서 "단지 인근에서 3년 이상 운영해 온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가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jippo@

캠코, 총사업비 1860억
국유지 개발사업 추진
대학생 주택건설 등 4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총사업비 1860억원 규모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유지 개발 사업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개발·운영하고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켜 나라 살림을 부강하게 키운다는 의미의 '나라기움'을 브랜드로 추진된다.

개발사업은 △나라기움 여의도빌딩 △나라기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 4건이다.

캠코는 내달 사업에 착수해 2017년 12월 나라기움 여의도빌딩 준공을 시작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중반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빌딩은 공군이 관리 중인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여의도방로 380)에 총사업비 1041억원을 투입해 지하 6층~지상 25층, 연면적 4만2335㎡ 규모의 민관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대학생 주택은 지난 3월 국유지 활용 아이디어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사업화한 것으로 해상 컨테이너를 활용해 단기간 내 저렴한 대학생 주거공간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 완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ipjippo@

송도 대우자판 땅 감정가 1조 법원경매 사상 최고가 매물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 달해

감정가가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 경매물건이 나왔다. 26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부지와 인천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 부지 및 그 외 잔여 토지 25필지(총면적 92만6952㎡)가 감정가 1조 481억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가 1조원은 역대 법원 경매물건 중 최고가로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된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옛 프레이타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이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경매는 인천천지방법원 경매21계(사건번호 2014-62086)에서 오는 12월 10일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가 높은 만큼 경매진행 비용만 5억원, 1회차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매신청권자는 피아이에이송도개발유한회사로 청구액은 805억원,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264억원이다. 등기



인천 연수구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부지와 인천천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그 외 잔여 토지 25필지가 감정가 1조481억원에 다음달 10일 경매에 부처진다. 사진제공 인천경찰청

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1조1875억원이며 1순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동양, 국민,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돼 있다.

경매 대상인 25개 필지는 종전에 자연녹지지역 등이었으나 개발사업 인가로 인해 용도가 상향 변경된 바 있으며 도시개발 인허가 효력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7호)의 시행기간 말기가 2014년 12월 31

일이며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14년 12월 31로 예정돼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해당 필지가 송도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에서 대규모 필지가 일괄로 나온다는 점,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소되고 3.3㎡당 370만원(감정가가 기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는 건설사나 부동산개발회사 등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공인중개사 73% "9·1대책 약발 다했다"

매매시장 약세 원인 '집값 상승 기대심리 하락' 꼽아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9·1부동산대책 효과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20~25일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634명을 대상으로 '9·1부동산대책 효과가 끝났다고 보느냐'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그렇다(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니다(아직 더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답은 26.5%에 그쳤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개월과 최근 1개월의 매수세 변화를 묻자 가장 많은 65.9%가 '매수세가 줄었다'고 답했고 '큰 차이 없다'는 답이 25.6%로 뒤를 이었다. '매수세가 늘었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하락(41.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경기 회복 지연(35.8%), 국회 부동

산법안 통과 지연(17.5%),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단순 약세(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응답자의 55.0%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5.0%에 달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6.7%)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필요없다(23.3%)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추가 대책으로는 양도세 인하,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주택의 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 완화책과 고가 전세 과세, 고액 전세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전세대책을 제시한 응답이 많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구제 완화, 지방 매매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동산서비스는 이번 설문에 수도권 412명, 지방 222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0.53%포인트라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케이) 번역
신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TSMC	캐논	화웨이	팍스콘
현재지도자	모리스 창(83세)	미타라이 후지오(79세)	런정페이(70세)	귀타이밍(64세)
주요업적	· TSMC 설립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	· 캐논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키움 · 일본과 서구식 경영 스타일의 조화	· 1987년 화웨이 설립 · 글로벌 메이저 통신 장비 업체로 도약	· 1974년 팍스콘 모회사 혼하이 설립 ·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로 키워
승계계획	· 2005년 은퇴했으나 금융위기로 복귀 · 지난해 두명의 공동 CEO 선임	· 임원 육성 프로그램 통해 내부 인재 키워 · 후계자 아직 나타나지 않아	· 2011년부터 순환 CEO제 도입 · 은퇴 후 누가 이을지 불확실	· 분사 통해 경영권 집중 부담 더는 방향 추진 · 공식적인 후계자 아직 없어

아시아 기술기업 “후계자 찾습니다”

1960~1970년대 창업주들 여전히 회사경영에 참여 창 TSMC회장 현재 83세

“리더 모든 결정권 가져 후임자 경력 기회 없어”

아시아 기술기업들이 후계 구도를 고민하고 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회사를 세계 일류로 키웠던 1세대와 2세대 최고경영자(CEO)의 나이가 들면서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것.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모리스 창(83) 설립자 겸 회장은 지난 2005년 은퇴했으나 4년 뒤인 2009년 금융위기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결국 일선에 복귀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창 회장은 현재 CC 웨이(61)와 마크 류(60)를 공동 CEO로 앉혀놓고 후계 구도를 짜고 있다. 창 회장은 “두 CEO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회사를 완전히 맡기기에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인 팍스콘테크놀로지그룹, 일본 캐논 등의 설립자나 2세 등은 그들만의 제국을 일궈냈다.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아시아 하드웨어산업의 경쟁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CEO들도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스탠퍼드대가 올해 미국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

분의 1만이 차기 CEO에 적합한 ‘인재 풀(pool)’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영국 에너지업체인 BG그룹은 전 CEO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해 7개월이나 CEO 자리를 공석으로 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아 기술기업들은 대부분 1960~1970년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을 이끈 리더들이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후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S&P500지수 상승을 이끈 아시아 10대 상장 기술기업 가운데 삼성과 팍스콘 TSMC 캐논 히타치 등 5곳의 CEO 나이가 60세가 넘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반면 미국은 10대 상장 기술기업 가운데 60세가 넘는 CEO가 있는 곳은 시스코 시스템스 하나밖에 없다.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79) 회장 겸 CEO는 캐논은 내부에서 젊은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회사를 이끄는 미타라이 회장이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탁생산하는 팍스콘의 귀타이밍 설립자는 일부 사업을 분사시켜 경영권의 분산화를 꾀하고 있다. 후계자가 될 인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고위급 임원 3명을 순환 CEO로 돌리는 독특한 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아직 그가 은퇴하면 누가 회사를 맡을지 불확실하다.

월리 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는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창업주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회사 일에 손 떼지 않도록 잡아두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경영스타일이다. 그러나 그 밑의 사람들은 언제 경영을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OPEC 감산합의 실패하면 내년 유가 반토막”

사전회의서 사우디 반대 합의의 무산 가능성 커져

원유수요 감소추세 지속 배럴당 35달러 하락전망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는 2015년에 배럴당 3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톰 클로저 오일프라이스인포메이션서비스(OPIS) 창업자는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의 투자 프로그램 ‘스퀘어박스’에 출연해 “OPEC이 내년 봄까지(감산) 합의에 실패하면 유가가 3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OPEC이 오는 27일 각료회의에서 최소한 ‘딥서비스’에 나서겠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원유 수요가 하루 100만~150만 배럴 줄어든 것이며, OPEC이 감산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십억 배럴의 원유가 재고로 쌓일 수 있다고 클로저는 내다봤다. 유가 급락과 함께 미국의 ‘셰일분’도

꺼질 것으로 전망됐다. CNBC는 미국 셰일업계의 투자가 이미 위축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량이 기존 전망치인 하루 100만 배럴에서 75만 배럴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요 외산에 따르면 OPEC 각료회의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4개 산유국이 사전 회의를 열었지만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 사우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OPEC 비회원국인 러시아와 멕시코의 담당 각료는 전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유가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감산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란 등 OPEC의 일부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에 감산을 촉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알리 알나미미 사우디 석유부

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장은 스스로 안정될 것”이라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일부 산유국은 독자적으로 감산에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즈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하루 원유 생산량을 2만5000배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OPEC의 감산 합의 불발 전망과 함께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40센트(0.54%) 떨어진 배럴당 73.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다. WTI는 오전장에서 배럴당 73.3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WTI는 올 들어 25% 빠진 상태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美추수감사절… 오바마, 칠면조 ‘특사’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이 칠면조 ‘치즈’를 바라보며 크게 웃고 있다.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 로비에서 연례 칠면조 사면행사가 열렸다. 생후 20주짜리인 칠면조 ‘치즈(Cheese)’와 맥(Mac)은 몸무게 약 22kg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이들 칠면조는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의 ‘모네파크’농장에서 보내져 된다. 칠면조 사면식은 1957년부터 백악관에서 시행됐고 ‘사면대상’ 칠면조 1마리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 마리를 더 지정해 총 2마리의 칠면조를 사면한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알리바바 회장) 인도 찾은 마윈

“전자상거래 성장 가능성 커 투자확대·현지기업 협력강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가 이번엔 인도시장 문을 두드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인도를 방문해 투자 확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 회장은 방문길에 오르면서 “인도에 지금보다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도에서 인터넷을 통해 옷이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특히 마 회장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인상 깊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컨설팅 전문회사 테크노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제품판매 매출 규모는 20억 달러(약 2조 21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3000억 달러, 미국 26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저렴한 스마트폰 값과 인터넷 사용자 등으로 성장 가능성은 밝다는 평가다. 서지희 기자 jhsseo@

베트남 부동산 ‘빚장’ 풀다

비자유효·현지진출 외국인에 매입 허용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베트남 의회가 부동산을 외국인에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비자유기간이 유효한 외국인이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은 현지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을 살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자구책은 최근 집계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베트남 내 부동산 재고 규모는 38억5000만 달러(약 4조2600만 원)이며,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경기부양프로그램을 시행하는가 하면, 저금리의 주택융자책 키지를 내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8%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촉매고 있는 금융시장 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고 있다. 비나캐피탈그룹 팜 앨런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이번 정책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방 정책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베트남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측면에서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것.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중·소 연계 투자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1·2차 협력업체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사업 건수는 76건이며 투자액은 5억34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366건, 총 37억5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응응 쑤 르우 국회 부의장은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한 배경은 외국인 자금을 끌어와 경제환경을 좋게 개선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글로벌 리포트

MS, 중서 사상 최대 벌금폭탄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았던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최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유명기업이 탈세혐의로 1억 3700만 달러(약 1516억5900만 원)의 벌금을 중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기업을 ‘M’이라고 칭하며 “해당 기업은 벌금 외 매년 1억 위안(약 180억2100만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M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이며 1995년 중국 베이징에 분사 전역 출자자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매체인 신라차이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신화통신이 언급한 ‘M’은 MS”라고 25일 전했다. 신화통신은 “M기업은 지난 6년간 중국에서 20억 위안의 손실이 났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다른 기업들이 보고한 수익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세금 당국이 M기업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부과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美정부, 오존농도 기준 강화

미국 정부가 오존의 대기 중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앞으로 오존의 대기 중 농도 기준치를 65~70ppb(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단위·1ppb는 10억분의 1)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특히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60ppb까지 오존 농도를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오존의 대기 중 농도 기준치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정해진 75ppb다. EPA는 내년 10월까지 새 기준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각 주(州)들이 새 기준을 맞추려면 최장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연방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 정부가 70ppb를 기준치로 채택할 경우 업계의 부담은 오는 2025년까지 39억 달러(4조3319억 원) 늘어나고, 65ppb를 채택하면 150억 달러(16조6200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美퍼거슨 한인업소, 피해 속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흑인 시위로 한인 업소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인 상인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했으나 업소 2곳이 전소되고 5~6군데는 설비 파괴와 약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현지 한인들은 미용재료상과 휴대전화 가게 등 2곳이 완전히 불에 탔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점들은 지난 8월 총격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시위 때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퍼거슨시 당국이 당분간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해 이들 상점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는 커녕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 이 흑인 10대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퍼거슨시에서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미주리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 측은 정확한 한인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CB, 양적완화 내년 1분기 결정”

비토 콘스탄치오 부총재

비토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가 내년 1분기에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2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영국 런던의 한 콘퍼런스를 위해 미리 준비한 연설문에서 “ECB는 내년 초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기 부양을 위해 국제 매입을 시작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달 커브드본드를 시작으로 이달 자산유동화증권(ABS)까지 채권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CB의 자산을 지난 2012년 수준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무제표를 감안한다면 ECB는 앞으로 1조 유로 이상의 자산을 매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콘스탄치오 부총재의 이번 발언은 이제까지 ECB 정책위원들이 내놓은 양적완화 시사 발언 중 가장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제까지 ECB의 양적완화도 입시기를 두고 무성할 추측이 오갔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연율 0.4%에 그쳤다. 이는 ECB가 목표로 제시한 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8@

스타. 스타를 말한다 황정민 이 말하는 황정민

“아버지에 대한 먹먹함, 남자라면 공감할걸요”



영화 ‘국제시장’ 20~70대 연기 “가족만을 위해 산 그들의 얘기”

안녕하세요. 배우 황정민(사진)입니다. 12월 17일 개봉을 앞둔 영화 ‘국제시장’으로 관객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 오직 가족만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저도 시사회를 통해 처음 영화를 봤어요. 촬영을 마친 지 1년 6개월 만에 영화를 봤는데 감독, 스태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영화를 봤어요. 박찬 감독입니다.

극중 아버지 덕수를 연기하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70대 연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20~40대는 살아봐서 이해할 수 있는데 70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흉내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몸의 움직임, 서 있을 때 자세, 평소 생각 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습득해야 덕수의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의 삶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어요.

촬영하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해 분명

히 먹먹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의 먹먹함이 있어요. 그래도 늘 산 같은 존재로 제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정진영 선배님이 아버지로 등장하시는데요. 정진영 선배님이 아버지로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큰 산 같은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했죠.

영화 속에서 6·25 피란 시절 헤어진 여동생 막순이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산가족 생방송에 출연하는 덕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동생 막순이 역을 맡은 배우가 외국 분이었는데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촬영 전 일부러 만나지 않았어요. 연기할 때 처음 통화하는 것이 낯났다고 제안했어요. 남원KBS에서 이원생방송을 하는 것처럼 촬영했는데 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그 분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했어요. 서로 배려해 줘서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 속에서 덕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참 많이 고생합니다. 과묵 탄광 일부러 월남 지원 등 고생을 마다하지 않죠. 작년 한해 촬영으로 힘들게 보냈는데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서 뿌듯해요. 예쁘게 영화를 잘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두선 기자 sun@



돌아온 7080 언니들 “한물갔단 편견은 버려”

양희은은 지난 17일 생애 최초 쇼케이스를 열어 정규앨범 ‘2014 양희은’ 발매 소식을 알렸다. 지난 1971년 9월 ‘아침이슬’로 가수 데뷔한 그는 어느덧 44년의 음악인생을 걸어오고 있다. 많은 히트곡과 스테디셀러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포크의 연인 양희은이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한층 짙어진 느낌으로 대중과 교감하고자 나섰다. 그는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잘하고 싶어서 앨범을 내게 됐다”며 “젊은 뮤지션들과 하니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들의 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번 앨범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앨범에서 양희은은 김시스터즈의 ‘김치 깎두기’를 제외하고 11곡을 모두 신곡으로 담았다. 대세를 따르는 새로움이 아닌 기존의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편곡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나영이네 냉장고로 스윙팝 재즈에 도전했다.”

이번 신곡을 통해 생애 첫 뮤직비디오를 찍은 양희은은 뮤비 연출을 개구무연 송은이에 맡겼다. 이 밖에 ‘서른 즈음에’의 작사작곡가로 유명한 ‘유리열의 스케치북’의 음악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강승원과 듀엣을 선보이는데 하면 수록곡 ‘넌 아직 예뻐’ 피쳐링을 맡은 동성 양희경과는 환상적 하모니를 선사했다. 또 한동준, 이한철, 장미여관의 육종완 등 젊은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 함께 호흡했다.

특유의 거친 음색으로 카리스마를 드러내며 1980년대를 풍미한 여가수 한영애는 1999년 ‘난다’ 이후 15년 만의 6집 앨범 ‘샤키포’를 들고 팬들을 만났다. 이번 6집 앨범은 김도현과 강산애, 그리고 국내 현대 록을 처음으로 소개한 유엔미블루의 방준석 등 다양한 음악인들과의 작업으로 칸트리풍의 레게음악, 리듬앤블루스, 록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10곡을 앨범에 담아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개인 일로 정신이 자유롭지 못해 앨범 작업을 미뤘다. 올 봄 이제는 정말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오랜만에 앨범을 내게 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앨범 제목의 ‘샤키포’에 대해 “세상을 깨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한영애를 닮은 음악이라 알려진 곡들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음악들이 좀 빠졌다”고 변화를 시도했음을 알렸다.

어쿠스틱 피아노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하루하루’, 진저리감을 사용한 레게 풍의 곡 구조를 가진 ‘인부’ 등 기존의 자기 색깔에 트렌드를 입혀 한층 짙어진 앨범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44년차 양희은 생애 첫 뮤비 찍고
후배 뮤지션들과 호흡도
15년 만에 6집 낸 한영애 ‘샤키포’ 세상 깨우는 주문 의미
레게·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 시도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가 주간 관객 202만1944명을 모으며 3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위에는 개봉 첫 주 47만9953명을 모은 ‘헝거게임: 모킹제이가 울렸다. TV는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32.2% (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를 기록하며 1위를, KBS 1TV 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는 25.8%의 시청률로 2위를 기록했다. 음악은 7년 만에 컴백한 토이의 타이틀곡 ‘세 사람’이 진입 첫 주 1위를 차지했다. 규현의 ‘광화문에서’가 2위에 올랐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인터스텔라	202만 1944명	686만 5792명
2	헝거게임:모킹제이	47만 9953명	48만 0566명
3	퓨리	46만 4309명	46만 9026명
4	카트	24만 5388명	66만 8916명
5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10만 0671명	10만 4603명
6	나를 찾아줘	4만 5652명	172만 1468명
7	패션왕	4만 3106명	58만 3383명
8	아더 우먼	2만 3357명	7만 5340명
9	부니 베이: 몰라 구슬 대모험	2만 3188명	2만 3827명
10	올브스	1만 3071명	4만 1975명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가족끼리 왜 이래	32.2	KBS 2TV
2	고양이는 있다	25.8	KBS 1TV
3	전설의 마녀	21.7	MBC
4	장미빛 연인들	17.2	MBC
5	달콤한 비밀	17.1	KBS 2TV
6	KBS 9시뉴스	17	KBS 1TV
7	해피선데이	15.7	KBS 2TV
8	가요시대	15.1	KBS 1TV
9	청담동 스캔들	15	SBS
10	개그콘서트	14	KBS 2TV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세 사람	토이	진입
2	광화문에서	규현	4
3	나는 달라	하이수현	-2
4	내가 그리웠니	MC몽	-2
5	유 연 아이	토이	진입
6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MC몽	-3
7	굿 보이	GD X TAEYANG	진입
8	헤븐엔딩	에픽하이	-3
9	12시 30분	비스트	-1
10	사뿐사뿐	AOA	6

쉽고, 편리한 투자의 시작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콧!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추천종목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 하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의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사용자 눈으로... 이제 목소리로 TV 봐요”

‘1급 시각장애인’ 강완식 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CJ헬로비전 ‘소리로 보는 TV...’ 개발 과정 참여 이미지→텍스트→음성... “미생’ 장그레가 보여요”

“미생의 장그레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상상이 가네요.”
1급 시각장애인인 강완식(사진)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이 고조된 목소리로 외친 한 마디다. CJ헬로비전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소리로 보는 TV, 이어드림(EARDREAM)’ 서비스를 선보인 자리에서다. 강 실장은 1년에 걸친 CJ헬로비전의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
강 실장은 “과거 아날로그TV 시절에는 채널이 몇 개 없애 조작이 쉬웠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환경이 됐다”며 “100개가 넘는 채널을 다 외우지 못해 원하는 채널이나 방송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리모컨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VOD 서비스, 검색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필요 없는 기능”이라면서 “이번 시각장애인용 TV로 어렵기만 했던 TV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드림은 지난 해 하반기 신입사원들이 참여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상용화한 것으로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TV를 본다는’ 역설적 관점에서 시작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활동 92%가 TV 시청으로 일반인보다도 시청시간(일 평균 218분)이 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강 실장은 “이번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것은 CJ헬로비전 측 제안 때문”이라며 “개발자 위주가 아닌 장애인 입장에서 기능을 제안하고 테스트 등 모니터링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놀랐던 점은 음성 처리에 대한 기술비용 문제로 개발이 주춤했던 기존 상용과 달리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된 서비스가 탄생한 것으로 이



이어드림 서비스 체험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한현철(58·서울시 은평구)씨가 이어드림 서비스의 음성안내를 받으며 VOD를 선택하고 있다. 한씨가 혼자서 VOD를 사용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 CJ헬로비전

과정에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디테일함까지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어드림은 방송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메뉴에 대한 음성안내는 물론 음성 기능이 추가된 15만 편의 영화방송 다시보기(VOD), 화면 해설과 예약 녹화 기능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화면해설 방송은 본 방송 이후 화면 해설 작가가 대본 작업을 한 후 더빙하는 과정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CJ헬로비전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이 비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다.
강 실장은 “음성이 한 종류라는 점, 속도 조절의 범위가 좁다는 점 등 한계가 있지만 ‘TV 보는 전 과정의 음성화’라는 혁신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은 12월 한 달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시각장애인 체험단을 운영하고, 2015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 노인(노안, 청력 문제), 다문화 가정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임직원에 네번째 이메일 보낸 황창규 KT 회장 “3분기 결실... 이제 완벽한 차별화로 가자”

“새로운 판을 만들어 완벽한 차별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이달 26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먹거리 창출 방안’을 언급한 e메일을 보냈다. 그는 e메일을 통해 “품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적용했던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을 통한 표준화, 고객에 숨겨진 니즈까지 일깨워주는 사업화 등이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완벽한 차별화”라며 “빅데이터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



통신과 원격제어가 융합된 농업 솔루션처럼 경계를 허무는 아이디어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도 전달했다. 황 회장은 “지난 3분기에 성장성,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무선 가입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선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가토피아를 선언한 지 1년도 안 돼 신진 기술은 하루 4000건을 돌파하는 등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과거 메가패스, 인터넷TV(IPTV) 등을 능가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처럼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것은 3개월 만이다. 그는 취임 이후 ‘CEO 생각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e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피오리나 前 HP CEO 美 대선 출마하나?

‘정보기술(IT) 여제’로 불리는 칼리 피오리나(사진)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오리나는 이미 기부자들을 만나 선거운동 인력을 모으고 있고 공화당 경선의 주요 주 운동가들에게도 ‘구’를 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뉴햄프셔, 아이오와, 워싱턴을 돌며 정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피오리나의 한 측근은 “그녀는 분명히 야망이 있고 선거운동 준비에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피오리나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피오리나가 공직 경력에 없는 등 결격 사유 역시 적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990년대 후반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위에 6년 연속 선정된 피오리나는 ‘IT 업계의 여제’로 등극했으나 2005년 HP와 컴패의 합병 이후 전직 결정됐다. 한편 피오리나는 지난 2010년에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이중근 부영 회장 ‘6·25전쟁 1129일’ 재향경우회 기증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편지서인 ‘6·25전쟁 1129일’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기증했다.
이 회장과 구태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부영빌딩에서 ‘6·25전쟁 1129일’ 도서 200권 및 요약본 1만권 등 총 1만200권 기증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증하게 된 이 도서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보급돼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알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21일 서울 종로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본사에서 개최된 롯데홈쇼핑 ‘제2차 나눔 릴레이 기금 전달식’에서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오른쪽)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오종남 사무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제2차 나눔 릴레이’ 유니세프에 1억

롯데홈쇼핑은 지난 21일 유니세프에 제2차 나눔 릴레이 일환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매일 하루를 ‘나눔데이’로 정해 ‘최유리쇼’, ‘정윤정쇼’ 등 전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금에서 1억원을 할약 단체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니세프 기부금은 지난달 25일 기부 방송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기금 전달식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참석해 오종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다. 기부금은 아프리카 빈곤 아동들에게 영양실조 치료, 우유, 복합미량영양소, 치료식 등을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치료 캠페인’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종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수천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번 기부금으로 치료식을 후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오는 12월 20일 네번째 후원단체인 임흥길 휴먼재단을 위한 4차 기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한국 방문한 세계적 건축가 렘 쿨하스 “역사 관심 부족으로 ‘전통·현대’ 갈등”

세계적인 건축가가 방한해 각 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 부족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서울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낸 자리에 지어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열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장소의 역사성을 무시한 흉물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DDP는 2004년 여성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명 건축가를 데려와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DDP처럼 일부 건축물은 한국의 문화적·지역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건물이라는 비판도 종종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70·사진)는 “외국 건축가 탓이라거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국가 내에서 전통과 현대 간에 갈등이 존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0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건축계의 거장이다. 또 국내에서 삼성미술관 리움의 아동교육문화센터, 서울대 미술관 등을 설계한 바 있다.
박태진 기자 lipippo@



렘 쿨하스는 지난 26일 DDP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일반화된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 하나였다면 이제는 많은 변화를 통해 전세계가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건축이라는 것 자체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교육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면서 “교육에 있어 역사가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역사는 먼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의 역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기자 lipippo@

‘자랑스러운 고려대 문과인’에 윤은기·이주태씨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과 이주태 미도교역 대표가 제10회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인으로 선정됐다.
윤은기 회장은 심리학과 71학번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재임 시 공직자의 의식과 자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협업진흥협회를 창립, 이종 분야 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주도했다. 이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구축하는 한편 모교와 취업계층에 대한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에도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다.
윤 회장은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영어영문학과 75학번 이주태 미도교역 대표는 한국수입업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건설한 기업경영과 대외교역 증진, 정부부처 통상정책 자문, 후학양성과 학술활동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제10회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인으로 선정된 윤은기(왼쪽)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과 이주태 미도교역 대표. 박태진 기자 lipippo@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별세 ‘구리 제련’ 세계적 업체로 성장 시켜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구 회장은 2007년과 2011년 담도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구 회장은 구태회 LG그룹 창업고문의 셋째 아들이다. 구자홍 LS미래원 회장, 구자업 LS전선 회장이 형이다. 구태회 창업고문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동생이다.
경기도와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고인은 LG칼텍스정유 상무이사, LG상사 부사장, 국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예스24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2005년부터는 LS니꼬동제련을



이끌어왔다. 또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과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사, 주한칠레 명예영사 등을 지냈다.
LS니꼬동제련은 국내 최대 구리 제련 업체로 대표적인 비철금속기업이다. 구 회장은 LS니꼬동제련을 세계적인 구리 제련 업체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구리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코퍼테이션’을 받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범근 기자 nova@

부음

- ▲윤남수·명수(SHK 대표)·기수씨 모친상, 최광해(삼성전자 고문)·김중현(현대건설 전무)씨 장모상 = 26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장지 천안공원 묘지, 02-3410-3151~3
- ▲김인성(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기술본부장)·천성(자영업)·정목(가주초등학교 교사)·은성(그림과사람들 원장)씨 부친상, 조희찬(한국교통대학교 교수)·노희건(자영업)씨 장인상, 김경자(음양초등학교 교사)·이충숙(상신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 26일 새벽 3시,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56

- ▲이은우(MBC 매체전략국)씨 부친상 = 26일, 의정부 신곡동 보람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31-856-9901
- ▲김동수(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회 실 수석전문위원)씨 모친상 = 26일 오전 7시,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5시 50분, 010-3898-3092, 02-3705-1314
- ▲백철환(인천일보 편집국장)씨 장인상 = 25일 오후,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지하 특실,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32-817-1023, 010-9494-8860
- ▲김철웅(제주매일 편집국장)씨 부친상 = 25일 오후 10시 15분, 제주시 도남동 부민 장례식장 제2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10-3697-0074

장세영의 서울 숨은그림 찾기 종로구 평동 경교장

백범의 흔적, 임정의 자취 오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서울에 있는 근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경교장은 김구 선생의 서거와 함께 64년의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 속 굴곡진 시간을 보내고 지난해 3월 4년간의 복원작업을 마친 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혹자는 병원 건물과 주차장에 끼어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 모습의 경교장은 '반쪽짜리 복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유물이다.

지난 22일 깨끗하게 복원된 경교장을 찾았다. 경교장은 서울시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2001년 서울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됐다가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승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장소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뤄진 경교장은 3개 층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유물로 채워져 있다.

1층에는 중앙홀과 응접실, 귀빈식당, 임시정부 사무실 등이 복원돼 있다. 입구 정면에 보이는 응접실은 경교장 오리엔테이션실로 경교장의 역사적 의미를 영상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경교장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설을 둘러보기 전 이곳을 꼭 들러야 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초입에는 복원 당시 기준



서울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경교장 전시실에 전시된 유물이 남겨진 김구 선생의 한복 저고리.

에 사용되었던 타일을 그대로 살려 두었는데, 특이하게도 전혀 예스럽지 않아 보였다. 보일러실, 부엌 등으로 사용되었던 지하공간은 복원 대신 세 곳의 전시실을 설치했다.

지하 제1전시실은 '경교장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경교장이 '죽점장(竹添莊)'이라는 이름으로 1938년 만들어진 이후 복원 뒷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접할 수 있다. 지하 제2전시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이 전시돼 있다. 임정 관련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유물 가운데 '속옷 밑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하에 있는 제3전시실에 들어가면 '유혈이 낭자한 한복 저고리'가 걸려 있다. 암살범 안두희는 2층 집무실에 있던 김구 선생의 인종과 배에 각각 한 발, 목과 가슴 사이에 두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암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이 저고리는 경교장 관람 동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유품이라 할 수 있다.

2층은 김구 선생 개인 집무실과 임정요인 숙소, 욕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당시 김구 선생과 안두희가 10여분간 마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책상과 총을 꺼내 들었던 곳으로 알려진 집무실, 김구 선생을 관통한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창문이 복원돼 있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암울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경교장은 관람 동선이 비교적 짧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면 전시 유물은 물론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역사와 주요 인물 등을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어 주말에 잠시 들러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뒤돌아 볼 만하다.

사진팀장 photthink@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황홀경에 갔다온 것 같다. 어느 별에서 왔느냐. 속으로 끝까지 알지 못했다. 끝나서 너무 아쉽다. (이진아는) 아티스트다. 심사받을 단계가 아니다. 합격 버튼을 누르지조차 미안하다." 극단의 찬사로 수놓아진 배국남의 심사평이다. 유희열도 못지않다. "내가 꿈꿔 온 여자 뮤지션의 실체를 여기서 봤다." 양현석은 또 다른 시선에서 칭찬한다. "인디뮤지션이 메이저로 성공하는데 (이진아가) 리드할 수 있겠다." 극찬의 연속이다.

이 찬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3일 방송된 'K팝스타4' 참가자 이진아다. 그녀는 자작곡 '시간이 전전히'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진아가 동료 가수조차 모르던 무명가수에서 뜨거운 화제인물로 단번에 부상한 데는 색다른 음색, 신선한 음악, 탄탄한 연주가 한몫했다. 하지만 결정적 원인은 따로 있다. 더는 형용할 수 없는 언어로 수식된 극찬의 심사평이다.

찬사 일색의 심사평은 이진아를 'K팝스타4' 출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시켰다. 심사위원들의 찬사는 그녀와 그녀의 음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출연 직후 무명의 인디뮤지션 이진아는 효린, 김범수 등 수많은 스타 가수들의 음악을 제치고 각종 음원사이트 1위를 차지했다. 포털 검색 1위도 독식했다. 이진아는 자고 나니 유명해진 것이 아니

가수 이진아가 어느 별에서 왔냐고?

라 단 5분여의 방송 출연만으로 톱스타를 압도하는 인지도를 얻은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 기적을 연출한 주역, 박진영의 "어느 별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왜 지난 2010년 11월 서울 반지하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인디음악인의 모습이 떠오를까. 그의 이름은 이진원. 원맨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으로 알려진 이진원은 '절후거리네, 스캐치 내 인생' 등 제법 알려진 노래들이 있었지만 연 수입은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고단한 현실을 살았다. 대다수 인디뮤지션처럼 그 역시 심한 생활고를 겪다 뇌출혈로 서른일곱 젊은 나이에 음악적 열정을 피우지 못한 채 숨졌다. 인디음악을 하는 가수들의 삶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지적처럼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인디음악의 어려움을 수면 위로 올리면서 그 음악이 실제로 얼마나 잠재력이 높은가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진아 역시 흥대 등에서 활동하는 무명 인디뮤지션이다. 그녀는 음반을 냈지만 50장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클릭수 100만건을 단숨에 돌파한 이진아의 공연 동영상은 방송 직전에 고작 234건에 불과했다. 이진아는 2011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지만, 대다수 대중은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K팝스타' 심사위원인 박진영, 유희열, 양현석조차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가수로서의 존재감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흥대를 중심으로 인디밴드와 음악인들이 결

집해 한국 인디음악의 장을 연 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아이돌그룹의 음악으로 대변되는 연예기획사 중심의 대중음악계와 다른 색깔로 대중음악 다양성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디음악이다. 개성고 독자적 표현, 실험성과 독창성으로 무장한 다양한 인디음악은 주류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음악의 질적 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인디뮤지션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류와 차별화 혹은 대항하는 새로운 음악, 시대와 트렌드를 이끄는 음악, 대중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며 성과물을 내고 있다.

하지만 감내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은 인디뮤지션의 열정을 잠식해 버리고 있다. 먹고사는 원초적 생존문제 앞에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음악을 포기하고 흥대를 떠나는 인디뮤지션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디뮤지션의 월 평균 고정수입이 69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에도 턱없이 못 자라는 월소득 50만원 이하 인디뮤지션도 38%나 된다.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221명의 인디뮤지션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뮤지션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다. 인디뮤지션의 적나라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인디뮤지션 이진아가 어느 별에서 왔느냐고, 적박한 인디음악계라는 별에서 왔다고 대답해 주고 싶다. 이진아에 대한 극찬 못지않게 그녀가 타고 있던 인디음악계의 적박한 현실에 관심을 보냈으면 한다. 그것이 제2의 이진아가 배출되고, 제2의 이진원이 나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디음악, 더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의 진화를 담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다시 식은 부동산, 가계대출만 더 쌓였지요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공인중개사 중 73.5%가 이미 끝났다고 답했다. 네티즌은 "선거에 이기려고 급조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얼은 건 많고 효과는 못 봤구나", "효과가 끝났더니 천만다행이다. 역효과밖에 없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출이 자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 곡소리 나는 거 알랑가 풀려", "만지작거라고 커질 게 아니다. 제발 가만히 좀 놔둬라", "실질적 가계 소득의 증대 없이는 어떠한 대책을 써본들 미봉책에 불과하다" 등 정부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영업장 규모나 흡연실 여부와 관



계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 금연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 흡연이 금지되는 것인데 온라인상에 논란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길거리 흡연 금지만 남았다", "좋다. 담배 피우고 싶으면 혼자 피우고 혼자 느껴라", "정 피우고 싶으면 당신들 방에서 문 다 닫고 피우든가" 등 동종 의견이 많았다. 반면 "흡연자들 진짜 불쌍하다", "담배는 팔면서 왜 흡연자격을 줄이는 거냐",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도대체? 이 정도 되면 아예 금지약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사건, 1위는 '월드와이드웹(www)'
2. 나폴레옹 머리카락 넣은 시계, 스위스서 500개 출시 예정
3. 해태 허니버터칩, 연말까지 매출 200억?
4. 기혼 여성 5명 중 1명 직장포기하는 이유
5.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렬... 노조 27일 부분파업 돌입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영화 '상의원' 조선시대 천재 디자이너 역 맡은 고수



배국남닷컴은 26일 배우 고수를 만났다. 고수는 12월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상의원'에서 궁내 유행을 일으킨 천재 디자이너 역 공진 역을 맡았다.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조선 최초 궁중의상극으로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린다. 데뷔한 후 첫 사극에 출연하는 고수는 이날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상의원' 제작보고회에서 "사극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15년 만에 하게 됐다. 시나리오가 재밌었다. 감독님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영어로 욕을 하더라. 그래서 시나리오가 더 궁금해졌다. 이런 감독에게서 어떤 영화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다. 감독님을 비롯해 배우, 스태프와 공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밌게 촬영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고수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더라"며 "사극의 말투 등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가보니 괜히 안 분위기가 무거웠다. 천천히라도 습관을 가진 공진이 그 분위기를 깨야 했다. 그 점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수는 공진 역에 대해 "그림으로 디자인을 하는 친구다.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그림들은 조연출이 그린 그림이다. 카메라가 있을 때만 직접 그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변 배우들의 미적 감각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배우들은 1분 동안 가장 입고 싶은 한복을 그려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고수는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한복을 그린 후 "상상 속의 모델을 그렸다. 모델이 정말 빨라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한다"고 그림을 소개했다. 최두선 기자 sun@

www.rynkorea.com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워킹 사이언스 **RYN**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데스크 칼럼

최 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발언 유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출...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최근 기재부 실무 국장이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와 물가가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

현제 한국경제는 경기와 물가가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

1997년 외환위기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귀족 노조는 비정규직 진입장벽을 더...

이 같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 같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신 동민 세종취재본부장

그나마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

비정규직 숫자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로 비정규직...

이 같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 같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고용문제로 비정규직에...

문제는 일부 대기업의 귀족노조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부당 대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국민의 대타협 없이는 일...

최 부총리의 고용 유연성 강화는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

최 부총리의 고용 유연성 강화는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

최 부총리의 고용 유연성 강화는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

최 부총리의 고용 유연성 강화는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

최두선의 나비효과

최민식의 특별한 수상 소감

배우 최민식(52)은 최고의 배우지만 안주하지 않는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은 각종 사건·사고로 지쳐있는 전 국민에게 진정한 리더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며 공감대를 자아냈다. 세계적인 거장 릭 베송은 '투시'에서 한국배우로 최민식을 선택했고 최민식은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최민식은 또 다시 진화했다. 그의 강렬했던 카리스마와 독보적 연기력은 세월의 풍파에 다들 어져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완성형에 다다랐다. 그 이전에는 최민식 특유의 겸손함이 묻어났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떠오른다. 김한민 감독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 연기자들이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배 위에서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안 하고 모든 부상을 감내한 60여명의 조·단역 배우를 감사하다."



통에 젖어 있다. 상업영화든 비상업영화든 서로가 상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모두의 축하를 받는 시상식에서 찬물을 끼얹는 수상 소감이었지만 최민식이기에 가능했던 소감이었다. 1999년 '쉬리'로 대중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최민식은 무려 15년 동안 수상이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의 수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한결 같은 그의 자세가 부당한 현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정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상이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쓴소리'도 거침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엑스트라 한 명, 자신의 필름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고 버려야 했던 무명 감독, 신념을 가지고 영화 제작에 인생을 바친 무명 제작자에 대한 최민식의 고뇌와 배려, 애정이 그의 '쓴소리'의 가장 큰 이유이다. 최민식은 반세기를 지나 51회로 세출발한 대중상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간재함을 과시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함께 후보로 올랐던 송강호, 박해일, 정우성, 강동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부탁했던 최민식이다. 1700만명의 관객이 선택해도 겸손할 수 있는 자세가 최민식의 진짜 힘이다. 문화부 기자 sun@

지난 21일 열린 제51회 대중상영화제에서 배우 최민식이 무궁고 진지한 표정으로 전한 수상 소감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오늘은 잔칫날이다. 상도 받고 기분 엄청 좋은 날이다. 하지만 한 쪽으로는 무겁다. 주제 넘게 한 마디 하겠다"며 "어떤 동료 감독이 자기 자식 같은 작품을 스스로 죽이는 모습을 봤다. 누구는 지금 쓴 소주를 마시면서 비...

2012년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최민식이 무궁고 진지한 표정으로 전한 수상 소감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오늘은 잔칫날이다. 상도 받고 기분 엄청 좋은 날이다. 하지만 한 쪽으로는 무겁다. 주제 넘게 한 마디 하겠다"며 "어떤 동료 감독이 자기 자식 같은 작품을 스스로 죽이는 모습을 봤다. 누구는 지금 쓴 소주를 마시면서 비...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전수, 광고문의, 구독신청, 배달안내.

객석

마음의 얼음을 깨는 책과의 만남



고 치 범 보건복지부 서기관

어느해보다 예쁜 단풍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가을은 지나갔다. 떨어진 낙엽과 초겨울의 옷깃을 울리며 종종 걸음으로 동네 도서관으로 가는 주말의 즐거움 한 일정을 보낸다. 급년 겨울 어떤 책으로 마음을 찌우며 보낼까 생각해 본다.

내가 책을 읽는 공간 중의 하나인 지하철에서 어느 시점부터 책 읽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졌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책을 보던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점차 줄어들더니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른 것이다. 우리사회가 소득의 양극화를 언급하지만 책읽기의 양극화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공공도서관과 함께 도서관도 늘고 많은 책을 읽는 이...

도 분명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속에서 책 읽는 모습의 부재가 우리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사회는 한때 자기계발서의 범람의 흐름 뒤에 이제 인문학을 읽자는 독서문화의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부의 귀족은 이를 수 없을지라도 누구나 생각의 귀족은 이를 수 있고, 책 읽기의 자기 변화로 멋진 삶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한다.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여유 있는 책 읽기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책 읽기는 습관이고 문화이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독서, 여행, 사람과의 만남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중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책 읽기일 것이다. 카프카는 책읽기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고 했다. 추운 겨울 많은 사람들에게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도끼 같은 책과의 만남이 있길 소망해 본다.

기자수첩

日 한류의 심장, 신오쿠보의 현주소



이 꽃 들 문화부/flowerslee@

11월 19일, 쌀쌀한 기운이 불을 스치는 오전 9시. 일본 도쿄 JR 아미노테 선에 몸을 실었다. 북적이는 한 매장. 깔깔깔 입구부터 50대 아주머니들의 유행곡 목소리가 높아진다.

목소리가 향하는 곳엔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합성사진 책꽂이 속 여장을 한 채 야릇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옆에는 JYJ 김준수의 얼굴이 담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DVD 속 락에 젖은 박유천의 라이브 실황 화면에 소풍 도중 낚을 놓고 바라보는 20대들이 있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쿠보역 부근 한국과 한류 제품 가게가 줄줄이 위치한 거리 풍경이다. JYJ 콘서트가 열리는 이날 일본 한류의 축소판인 신오쿠보...

는 이른 시간부터 냉랭한 바깥 날씨가 무색하게 세대불문 팬들로 붐비고 있었다.

인기있는 한류스타의 화려한 이벤트 이번에는 일본 한류의 위기의 정추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가수 이승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국 거부당하는 등 일본의 보수 우익적 정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손님이 많아 되는데 요즈음은 한류스타 공연 있는 날만 붐비네요. 어제(18일)는 엑스 콘서트 가 있었다죠?" 신오쿠보 한류샵 화장품 코너 40대 직원의 말이다.

한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의 콘텐츠는 분명 유효성을 발휘한다. 이는 일본 팬들과 직접 만나는 공연으로 돌파구를 찾는 JYJ, 엑스, 박병 등 가수들의 최근 활동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완성도 높은 스타 콘텐츠의 위력을 절감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게 상대방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tvN 드라마 '미생' 대사처럼, 본질을 잃지 않는 전략이야말로 일본의 한류 난세를 뚫는 비결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ah.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총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가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쓸어치게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538)
영등포 (02-2639-1536)
충정점 (041-640-5753)
광주점 (062-360-1402)

강남점 (02-3479-1532)
인천점 (032-430-1563)
부산점 (051-745-1823)

경기점 (031-695-1845)
의정부 (031-8082-0712)
마산점 (055-240-1406)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 안양베네스트 cc
· 동래베네스트 cc
· 가평베네스트 cc

· 이포 cc
· 안양베네스트연습장
· 센추리21 cc

· 신원 cc
· 아시아나 cc
· 해비치 cc 서울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 www.banggolf.co.kr



직무경험 쌓고 가산점... 인턴 '또 하나의 스펙'



Cover Story

겨울방학 인턴·알바

바야흐로 동계 인턴 채용의 막이 올랐다. 인턴 제도는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직무 내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기업은 일정 기간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채용시에도 지원자의 인턴 경력을 통해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인턴 제도가 모든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턴에 채용되더라도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 경험하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상처를 받는 취업 준비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턴을 준비하는 이들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나마 인턴생활에 대한 보람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동계 인턴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생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또 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그것이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일명 '신(神)의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대학가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매년 각급 행정기관에서 모집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치열하다.

여는 아르바이트와 달리 관공서 아르바이트에 대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 시급이 보장되어 있고, 근무 환경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구멍' 취업문 뚫기 구직자의 필수코스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행정도우미 모집 경쟁률 50대 1 '신의 알바' 최저시급 보장 근무환경 좋아 지원자 몰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방생들에게는 행정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경쟁률이 제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몇 가지 팁을 제대로 알면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게임이나 리포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자료 검색을 위한 인터넷 서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를 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어 원거리 관공서 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관공서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여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태관리가 엄격하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같은 조건이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근거리 거주자를 선호한다.

이밖에도 보통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근무가 많다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대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인턴은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사전에 명확히 알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곳에서 인턴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묻지마’ 지원은 금물... 채용전제형 기업 노려라

기업(모집분야), 근무기간	자격조건/우대사항(※접수방법)
남양유업(영업관리직, 사무관리직, 생산관리직, 기술직) - 2015년 1-3월(3개월)/(마감일: 11월 27일)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15년 2월) 또는 기 졸업자 · 생산관리직은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 · 기술직은 수질 / 환경관련 · 기사자격증 소지자 · 보훈대상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 *접수: http://company.namyangji.com
한국화이자제약(Global Established Pharma 사업부/영업 부문) - 2015년 1-3월(3개월)/(마감일: 11월 27일)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부문별 관련 전공자 *접수: http://pfizercareers.com/apply
국립생태원(연구직, 관리직) - 4개월(마감일: 11월 27일)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 청년인턴 경력자, 재학생 · 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지원 불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2015년 4월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접수: http://nie.recruitercenter.kr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업무 보조) - 2014년 12월 8일~2015년 4월 7일(4개월)/(마감일: 11월 28일)	· 만 34세 이하 남자 · 대학 재학생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우선 채용 · 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이 원활한 자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
오비맥주(연구소, 생산관리, 물류) - (마감일: 11월 30일)	· 연구소는 식품관련기사, 주류제조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공무관 · 생산관리는 환경관련기사 자격증 소지자 · 물류는 CPM 자격증 소지자·전부문 공통 영어우수자 *접수: www.obbeer.co.kr
한국야쿠르트(IT, 연구) - (마감일: 12월 1일)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단, 신입의 경우 2014년도 기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 연구원의 경우 석사이상 · 병역필 또는 군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즉시 현업 근무 가능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관한 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접수: www.yakult.co.kr/recruit
한국로보트보수(DS, GS, AA, PT, CC, RO, EO, ST, BST, ETAS) - 6개월(마감일: 12월 1일)	· 3,4학년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2015.01.02(금)부터 6개월간 근무 가능한 자 · MS오피스 활용 능력 (중급 이상) ·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영어 작문 및 회화능력)
대구백화점(종합직-영업관리) - (마감일: 12월 1일)	· 4년제 대학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 학점 3.0 이상) ·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경력이 풍부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우대 *접수: job@debec.co.kr
대한주택보증 (관리직원 6급-통합/전산, 관리직원 7급-고졸) - 5개월(마감일: 12월 2일)	· 학력, 성별, 연령, 전공, 어학성적 등 제한 없음 *접수: www.khgc.co.kr · 관리/급은 고졸자에 한함-관리/급 시간선택제는 고졸자 경력단절여성에게 한함 · 전문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법무사, 세무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통계학 석사 이상자) 우대
한국필림모리스(Sales/Marketing/Finance/Information Services/HR/Corporate Affairs/Operations) - 2015년 1월 28일~2월 25일(4주)/(마감일: 12월 19일)	· 국내 외 4년제 대학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 영어능통자 *접수: www.lnkcompass.asia

‘취업 지름길’ 인턴십 성공비결

인턴십은 취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스펙 중 하나이다. 신입 채용 시 실무 능력 검증을 중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턴은 구직자들이 거쳐야 할 하나의 통과리듬이 됐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은 신입 모집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바늘 구멍을 뚫고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험이 시작된다. 인사 담당자들과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인턴 생활을 위한 일차배기 팁을 들어봤다.

“인턴 아닌 신입사원” 마음가짐 적성·전공 관련 직무 우선 지원

능동적 자세로 사내 인맥 쌓고 업무·자신 역량 ‘궁합’ 따져라

△‘묻지마’ 지원 대신 미래를 내다보자 = 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흥미, 성격, 전공 등을 고려해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및 업종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인턴 기간 중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진로와 관계 없는 분야에서의 인턴 경험을 목표로 하는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무작정 경험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분야에 맞는 직무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같은 인턴십이 아님을 명심하자 = 인턴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 실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단순 사무보조 인력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에 따라 인턴 채용의 목적 및 운영 방식에 차이

를 보이는 만큼 지원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전제형 인턴의 경우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적합하다. 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주요 직무를 미리 경험해 본인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턴십도 있다.

△인턴이 아니라 ‘신입사원’이란 생각을 갖자 =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을 ‘인턴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인턴은 지원할 때부터 근무할 때까지 항상 ‘내가 계속 근무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도 얻게 된다.

각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턴에게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기는 회사는 없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인턴다운 젊은 열정과 패기를 어필하자. 또 현재 주어진 업무를 통해 회사의 업무처리 절차나 방식 등을 파악하고, 선배 직원들의 업무 태도, 직장 예절 등을 보고 배우며 조직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실력은 물론 인맥도 쌓자 = 인턴십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턴 사원을 평가하는 사람은 일을 가르쳐 주고 함께 근무하는 선배 사원인 만큼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근무태도는 물론 실무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쌓은 사내 인맥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경우 회사 생활에 빠르게 잘 적응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급정보를 몸으로 익혀라 = 직접 근무하면서 체득한 기업의 정보는 지인, 취업 커뮤니티, 기사 등으로 접하는 기업의 단편적인 모습보다 훨씬 유용하다. 꿈에 그리던 기업이라도 막상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동떨어져 있거나 조직문화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구직자는 인턴십을 자신이 선택한 직무와 지원할 기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턴십 끝에 이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점을 알게 됐다면 충분히 값진 시간을 보낸 셈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서민 경제에서 나라 경제까지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

경계가 어려울수록 오뎅! 일어나세요

서민경제부터 나라경제까지 대한민국 자산을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뎅이는 왜 쓰러져 있을까요?

오뎅! 일어나야 합니다

경계가 어려울수록

서민경제부터 나라경제까지 대한민국 자산을 관리합니다

어려운 서민에게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을 지원하여 재기의 희망을 키우는 캠프!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정리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키우는 캠프! 나라채산을 적극 관리하고 가치를 높여 국가재정을 키우는 캠프!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행복기금** 을 쳐보세요 ■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 1397

면접 유형별 자기 PR 전략



개별진행 방식에선 ‘1분 정도 소개’ 집단은 45초 내 ‘짧지만 강한 어필’

PT 맨 직무 관련 수식어로 표현 토론에선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 임원면접은 열정+유머 보여줘야

심혈을 기울인 자기소개서로 인턴 채용 서류전형은 통과했다면 이제 비슷비슷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면접의 산을 넘어야 한다. 개별면접, 집단면접, 토론면접, PT면접, 임원면접 등 다양한 면접 유형에 맞는 자기 PR 전략은 무엇일까? 개별면접의 경우 편안하면서도 차분한 면접 분위기에 맞게 자신을 PR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 자기 PR을 하는 것보다는 1분 자기 PR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너무 짧게 자기 PR을 할 경우 회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면접은 대(多)대(多)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자기 PR전략이 중요하다.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길지 않게 45초 내로 짧지만 강한

개 자신을 PR하는 것이 좋다. 직무나 지원회사 관련 제품에 대한 비유를 통한 PR방식이나 별명, 색상 등에 대한 PR방식을 택하는 것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가 될 수 있다. 토론면접에서의 자기 PR은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평이한 자기 PR방식보다 윗트있게 보일 수 있다. 특히 토론에서는 자기 주장만큼 중요한 것이 경청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지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PT면접의 경우 발표 시간이 5분에서 길면 10분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PR을 할 때는 20초 이내로 이들과 지원 부분 중심으로 짧게 준비할 것을 권유한다. 직무와 관련한 수식어로 짧게 표현하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면접관이 잘 기억할 수 있다. 최종 관문인 임원면접은 직무의 비중보다는 인성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인간성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면접관을 웃게 짓게 한다면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선호도 1위' 치열한 경쟁... 컴퓨터 활용능력 필수

'꿈의 공공기관 알바' 살펴보니

방학이 다가오면서 관공서들도 아르바이트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관공서 일자리는 항상 선호되는 분야로 꼽힌다.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에 비해 안정적인 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데다 통상 하루 5시간 근무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그러나 선호 분야인 만큼 경쟁도 치열하므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본적 사무능력을 미리 갖추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루 5시간 칼근무·휴일엔 휴무 행정업무 간접 경험 취준생 인기

인터넷 서핑·오피스 프로그램 등 실무능력에 근거리 거주자 선호

◇여전한 선호도 1순위 '관공서 알바' = 아르바이트는 힘들고 곳은 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관공서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관공서는 시민들이 각종 용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지 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본 환경만으로도 일단은 합격점인 셈이다.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것도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장점이다. 일이 돌리는 회사의 경우 아르바이트 자리라 해도 잔업이나 야근, 휴일 출근을 감수해야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일에는 무조건 쉬 수 있다. 대부분 하루 5시간 정도의 짧은 근무시간도 매력적이다. 학업이나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행정

업무를 해 볼 수 있는 것도 관공서 알바의 장점이다. 특별히 공무원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취업하면 사무직에서 일하게 되는 대학생이라면 취업 전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미리 사무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중요한 업무보다는 보조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일하는 곳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점이 적지 않다. 또 고용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이상 급여를 떼이거나 부당대우를 당할 염려가 적다는 점도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다.

◇관공서에서 일하려면 =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높은 경쟁률을 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컴퓨터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업무자들은 게임이나 리포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자료 검색을 위한 인터넷 서핑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공공기관 중 다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컴퓨터 활용능력'을 수자를 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MS엑셀이나 아래아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구체적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가까운 관공서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공서는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닌 대신 근태관리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같은 조건이면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근거리 거주자를 선호한다는 게 업계 담당자들의 조언이다. 보통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근무가 많으니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방학을 이용해 한두 달 동안 잠깐 일하려는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매년 여름-겨울 방학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관공서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어도, 나중에 다시 지원하고 싶다면 비슷한 업종의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직활동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유사경험을 내거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좌영길기자 jyg97@



노원소방서는 지난 1월 소방서 차고 앞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관 일일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기호흡기 착용, 수관 굴리기, 펌프차량 탑승 및 하차 등의 실습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방화복, 안전헬멧,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실제 소방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진행하였다. 뉴스시스

2014년 겨울방학 주요 관공서 아르바이트

지역	기관	선발인원	접수기간
서울	강남구청	144명(1차 72명, 2차 72명)	11월 27일~12월 9일
서울	강북구청	50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10명 특별선발 포함)	12월 1일~12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청	170명	12월 1일~12월 5일
서울	노원구청	50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15명 특별선발 포함)	12월 2일~12월 15일
강원도	평창군청	30명	12월 8일~12월 12일
서울	관악구청	35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9명 특별선발 포함)	12월 8일~12월 15일
서울	마포구청	35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11명 특별선발 포함)	12월 5일~12월 12일

관공서 알바 하는 일

행정보조 위주... 업무연수 성격 강해

일괄채용·시급 6000~7000원 수준 지역 젊은이들에 일자리 경험 목적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행정 보조업무 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인력활용이라는 측면 외에 지역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요즘 관공서들은 아르바이트 모집 대신 행정체험, 업무연수 등의 용어가 들어간 공고를 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다.

급료는 하루 5시간 근무 기준 3만~4만원 선이다. 시간당 6000~7000원 정도의 시급이 주어지는 셈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돼있는 곳도 많다.

대부분 일괄적 채용을 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지만, 지원자가 미리 원하는 업무를 적어내면 희망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히 떠올리는 구청 부서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다. 각종 서류를 분류하는 단순작업이나 전산 작업 외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각종 행사에 투입돼 진행요원 일을 맡을 수도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지역 맞춤형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체크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면 좀 더 활동적 업무를 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일일이 전달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기능훈련에서 보조요원으로도 일하게 된다. 이 밖에 장애인 관련 사업 자료정리 업무를 맡을 수도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분야에 미리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지역 도서관에 배치돼 도서관이나 정리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보건소나 지역 시설관리공단도 각 구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배치되는 곳이다.

좌영길기자 jyg97@

행복이 더 퍼지도록, 행복이 더 커지도록
메리츠화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행복을 지켜주는 보험

(주)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 Basket

- ▶ 고객맞춤 보장설계 (해당 특약가입시)
-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 현물보상 솔루션 (해당 특약가입시)
- ▶ 입원 시, 퇴원 후 간병인 지원 • 입원일부터 완치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 ▶ 멀티디스카운트 :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66-7711**

행복을 곁에 두세요
MERITZ 메리츠화재

손해보험회보 상인민 제2014-1532호 (2014.6.16)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부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리켜금공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겨울 다운재킷 스타일

언니와 아줌마 한 '핏' 차이

다운재킷 스타일 승부는 한 '핏(Fit)' 차이다. 다운재킷은 꾸준히 사랑받는 방한 의류이지만,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코디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다. 도톰한 볼륨에 자칫 투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울 시즌, 기장이 짧은 쇼트 다운부터 롱 다운까지 '핏'을 강조한 다운재킷이 출시되며 스타일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과 디자인총괄 이은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올 겨울은 흑한보다는 삼한사온이 반복되는 긴 추위가 예측되면서 다운재킷 역시 두터운 볼륨감을 덜고 스타일을 한층 강조한 아이템이 인기를 끌 것"이라며 "특히 핏에 민감한 중년 여성의 경우 서링, 벨트 등으로 허리선을 강조한 다운재킷을 활용하면 눈에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고, 날씬한 실루엣과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겨울에도 꼭 짙은 각선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기장이 짧은 쇼트 다운재킷이 제격이다. 최근에는 포근한 볼륨감에도 상체는 물론 하체까지 날씬한 핏이 돋보이게 하는 '다이너 재킷 스타일'의 쇼트 다운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이너형 다운재킷'은 심플한 디자인에 타이트해 보일 정도의 슬림 핏으로 몸매를 강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층 캐주얼한 분위기로 청바지나 치마에 매치해도 좋으며, 멋스러운 세미 정장 스타일 연출에도 제격이다.

네과의 '아테나 구스다운'은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는 브라운 컬러가 돋보이는 라이더형 쇼트 다운재킷이다. 기장이 짧은 앞면과 달리 뒷면은 허벅지를 살짝 덮는 길로리,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인다. 허리 부분을 강조한 절개 패턴과 함께 벨트도 포함돼 있어 스라인을 살리기에 제격이다. 가격은 39만원이다.

최근에는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댁시 있게 착용할 수 있는 롱 다운재킷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롱 다운은 디자인이나 컬러가 심플할수록 자칫 운동복이나 기능성 방한 의류로 보이기 쉬워 핏이나 스타일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네과의 '헤라 구스다운'은 허벅지를 덮는 긴 기장과 보디라인을 강조한 패턴으로 슬림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허리를 조여주는 벨트까지 적용해 한층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뽐낼 수 있다. 가격은 59만원이다.

이젠빅의 '에이치 엘라틱 다운'은 체크 패턴과 울 코트 느낌을 그대로 살린 프린트로 클래식한 감각이 돋보이는 롱 다운재킷이다. 허리에 서링 봉제 기법과 벨트를 적용해 보다 날씬한 핏을 강조했으며, 후드에 풍성한 라본 퍼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가격은 59만원이다.

롱과 쇼트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다운재킷도 화제다. 이젠빅에서는 하나의 다운재킷으로 상황에 따라 롱 다운과 쇼트 다운 스타일을 번갈아 연출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다운재킷 '미네르바'를 선보였다. 이젠빅의 '미네르바'는 밑단 부분의 탈부착이 가능해 기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때에 낸 밑단은 베퍼머로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가격은 39만원이다. 이선에 기자 isa@

서링·벨트 허리선 강조 날씬해 보여 짧은 라이더형 재킷 각선미 살려줘 밑단 탈부착 '트랜스포머형'도 인기

'주름'보다 '모공' 잡아야 진짜 어려워진다

헤라 '실키 클렌징 무스' 노폐물·각질 자극없이 깨끗이 '셀 에센스' 피부에너지 충전... '모디파이어' 모공에 탄력



실키 클렌징 무스 셀 에센스 모디파이어

건조한 날씨와 찬 바람으로 인해 피부 탄력은 처지고 모공과 칙칙해진 피부부터 고민이라면 보다 어렵고 팽팽한 피부를 위해 생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스마트한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쇼핑 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시기가. 현명한 안티에이징 케어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의 원인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움푹 패인 주름이라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주름을 케어하기 위한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모공리스 피부', '도자기 피부'와 같이 모공 없이 매끈한 피부가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면서 모공이 동안 피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극 없는 거품 세안 클렌징= 환절기에도 매끄러운 투명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 완벽한 클렌징과 보습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갑자기 변한 기온 탓에 피부 신진대사 기능은 위축되고 세포의 재생활동은 둔화된다. 이로 인해 피부는 건조와 예민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진다. 때문에 자극 없는 클렌징으로 모공을 깨끗이 해 주고, 피부결을 정돈하는 에센스나 피부 속 수분을 가득 지켜 주는 보습 제품으로 케어하는 것이 좋다.

폭신한 거품 세안제로 피지막을 보호하면서 모공을 깨끗이 씻어낸다. 세안 시에는 손이 피부에 닿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거품으로 가볍게 클렌징하고, T존 부위는 좀더 힘을 줘 마사지하듯 클렌징 해 주는 것이 좋다.

헤라의 실키 클렌징 무스는 가벼운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한 번에 제거해 주며 멀티 프루즈 성분이 피부 각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또한 탄산 거품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안팎을 투명한 청정 피부로 유지시켜 준다.

◇몸속 물과 많은 제품으로 피부 속 수분 충전= 부드러운

거품 클렌징을 했다면, 피부결을 정돈해 주고 맑고 촉촉하게 채워 주는 워터 타입 에센스 제품으로 피부 표면에 힘을 실어 줘야 할 차례다.

헤라 셀 에센스는 하루 동안 피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신속히 충전해 매일매일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회복시켜 준다. 또한 급격한 온도 저하로 피부 세포 내 수분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이라면 먼저 피부 속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한 세포가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

◇피부 노화의 지표, 모공주름 케어= 다음은 새로운 노화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모공주름을 케어할 차례다. 얼굴에는 총 2만여개의 모공이 있다. 헤라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얼굴에 퍼져 있는 2만여개의 모공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 늘어난 모공을 바로 세워야 탄력도 끌어올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라는 동그랗던 어린 모공이 길쭉해져 연결되는 주름처럼 보이는 현상을 '모공주름'이라 명명하고, 모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공을 받치고 있는 '탄력 허리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헤라 모디파이어는 모공주름을 케어하는 '셀-바이오 레이어 벨트(Cell-Bio Layer Belt)' 성분이 함유돼 있어 주름, 탄력, 모공 개선된 메이크업과 탄탄한 동안 피부를 선사한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햇볕 쬐기 힘든 겨울... 비타민D로 우울증 날리세요

고려은단 '메가도스D'

실내 활동은 늘고 야외활동은 부족해지는 겨울이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야 건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비타민D 부족을 초래한다. 비타민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 비타민D는 호르몬처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햇볕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D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칼슘 중 일부는 소장벽을 통해 스스로 흡수되지만 상당 부분은 그냥 통과한다. 비타민D는 이렇게 배출되는 칼슘을 소장벽으로 운반해 흡수할 수 있도록 도



우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질환에 걸릴 수 있다. 골다공증은 물론 면역력을 낮추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구루병을 유발하고 경련, 근력 저하, 호흡기 감염 증가, 심장 근육병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신경과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족하면 우울

증이 오기 쉽고 기억력이 떨어져 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긴 겨울 입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봄이 될 때까지 적절한 비타민D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400~800단위 정도 비타민D를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비타민D 부족이 심한 사람은 하루 1000~2000단위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기회가 적고 식품을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대안이다. 고려은단은 고품질 스위스산 비타민D 보충제인 '메가도스D'를 선보이고 있다.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D3 형태로 1000단위, 영양소 기준치 대비 500%가 함유돼 있는 국내 유일의 고품질 비타민D 제품이다. 바닐라향 코팅으로 냄새를 최소화해 섭취하기 좋다. 이선에 기자 isa@

ELLE

TIME & JEWELRY

ELLE used by (S)Woo (K)D under license from ELLE JEWELRY CO., LTD. in Seoul, Korea. www.elle.com

“열린다 차이나”...2012년부터 온라인마켓 농식품 판촉전 4억 밀돌던 매출, 2년 만에 120억



김재수(왼쪽) aT 사장과 오민지 알리바바 B2B사업 총재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알리바바의 '1688.com'에 입점한 우리나라 농식품을 소개하는 모습.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중 수출의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대중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의 '1688.com'과 손잡고 우리나라 24개 업체, 872개 우수 농식품을 입점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과 만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온라인쇼핑몰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중국 B2B 시장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조8500억 위안(약 329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오는 2017년에는 4조 위안(약 7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중국 온라인 시장의 중심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는 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 최대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에 우리나라의 농식품 제품이 대거 입성했다는 것은 중국 B2B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검사검역·통관 등 각종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좀처럼 판로를 뚫기 쉽지 않은 중국 시장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공식품들을 알리바바의 B2B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모션 행사인 '한국 우수농식품'을 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 '하이테크', '웅진' 등 한국 식품기업의 현지진출 법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정식 대리권

한국 식품전 열어 800여 제품 소개
이미지 제고·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한중 FTA 타결...수출확대 노력”

알리바바와 손잡고 B2B시장 진출
24개 업체 872개 우수농식품 입점
진입장벽 높은 中 공략 발판 마련

을 가진 수백바이어 등 총 24개의 우수 한국식품 취급업체가 800여개 제품을 소개했다.

기존에 알리바바(1688.com, B2B) 사이트 내에서 한국 식품은 대부분 온라인 전문 대리상이나 2차, 3차 도매상을 통해 판매가 이뤄져 정상통관 제품 여부 등 제품의 신뢰성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식품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aT에서는 중국 온라인마켓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중국 내 수입식품 전문 B2C 온라인마켓인 '1호점(1號店)'과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해 2011년 4억원 미만이던 한국 식품 매출을 2013년에는 12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입점품목도 200여 품목에서 최근에는 13개 부문, 1200개 품목까지 늘어났다.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겪는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지난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통관 규정이 복잡하고 항구별로 중국어 라벨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 국내 업체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충식 aT 식품수출 이사는 “지난 4월 대중국 비관세장벽 조사 결과 10건 중 5건이 통관 예외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T는 중국의 공신력 있는 전문 인증업체(CCC·中國檢驗認證集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농식품 통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을 늘리고자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T는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신속·정확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준공될 청다오 수출물류기지과 7곳의 현지 냉장 물류센터에 대한 입차 지원 등을 통해 유통·물류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5일에는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aT와 업계 간 결의를 다지고자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aT는 식품업체들에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마켓에 대한 입점을 늘리고 청다오 수출물류기지를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83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aT와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오는 201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10월까지 가공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 41억9800만 달러였다. 이 중 대중국 가공식품 수출은 6% 증가한 6억7900만 달러로 전체 가공식품 수출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농식품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알리바바' 온라인마켓 입점과 같은 대중국 온라인 마케팅도 확대해 중국을 우리 식품의 수출 주력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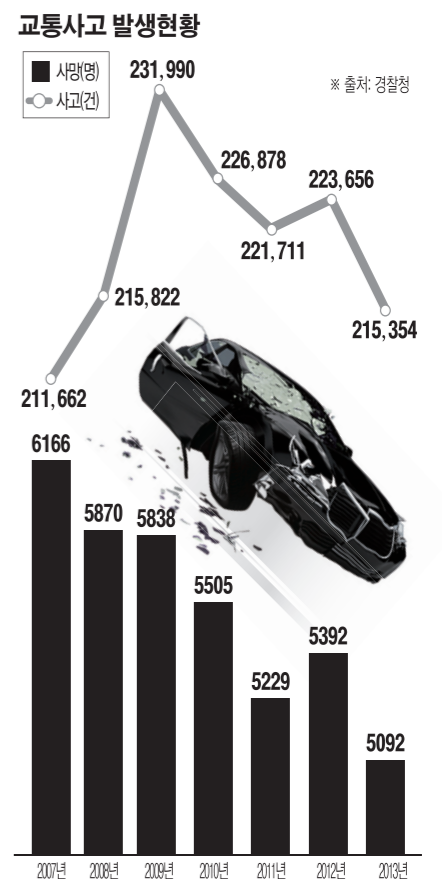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5000여명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안전공단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 전사적 추진

‘5만8358명’.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 1만8400명의 3배가 넘는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보다 교통사고가 더 무서운 재앙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오영태 이사장



이처럼 높은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관련 모든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4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는 지난 8일 취임한 오영태 신임 이사장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실장, 대한교통학회 회장,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아주대 교통ITS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국내 대표 교통 전문가로 꼽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기준 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31위였다. 공단은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에 혁신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교통사고예방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사고다발 운전자 2000명과 사고다발 중점관리회사 200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엔의 ‘도로교통안전 10개년 계획’과 연계, 버스회사들의 안전관리 수준도 국제기준인 ISO39001에 맞게 상향키로 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된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진

로변경 등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행태 교정서비스를 제공해 효과를 보고 있다. 또 과속, 급가속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적극적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 운전자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 방침이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빗길, 눈길 등 도로 위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공단은 2009년부터 경북 상주시에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측은 2009~2012년 수강생 3만2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이후 12개월 동안 낸 교통사고 건수가 교육 전보다 59% 줄었다고 밝혔다. 첨단 도로점검 자동차인 ‘아라서(ARASEO)’를 활용해 안전에 취약한 도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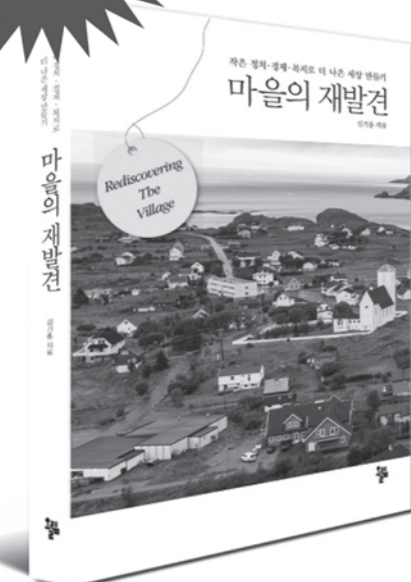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일 전날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집계자료를 보고 있다”며 “연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늘어나지 않으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4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인류의 미래는 ‘마을’에 있다!

두고두고 읽을 책만 만듭니다
문의 02-720-3131

2014 하반기
화제의 신간!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김기홍 지음 | 350원 | 15000원

국가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고 세계화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자원 위기, 부의 편중과 사회적 갈등, 불안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포위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도 국가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안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village community)’를 새롭게 보고 그 가치를 활용한다면, 국가는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개인의 삶은 보다 인간다워질 것이다.

국가는 부의 편중, 방사능 유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계층 간 갈등,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저자는 ‘마을 공동체’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마을을 되살리고 마을 간의 유기적 연대를 추진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향신문**
마을의 작은 정치, 작은 경제, 작은 복지는 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 복지 및 상생작용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국가가 마을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연합뉴스**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김기홍

농민신문 기자, 고려대 사회학 박사, 그동안 농촌 사회·경제·지방·문화 등의 분야를 취재해왔으며, 지금은 농촌 마을의 사회지분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문화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지역 활성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과 협력, 마을학(villology)의 체계화와 세계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마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왜?

7년만에 2조2000억 규모...“주주가치 제고”라지만 “지주사 전환 포석” 해석

삼성전자가 7년 만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리자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이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통주 165만주(발행주식의 1.12%), 우선주 25만주(1.09%)에 대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이며, 보통주 119만원, 우선주 91.9만 원 기준 총 취득금액은 2조193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작년 자사주 취득은 지난 2007년으로 이번 자사주 취득은 7년 만이다.

삼성전자의 갑작스런 자사주 매입을 놓고 시장에서는 갖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자사주 매입이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

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삼성전자를 지주부와 사업부사로 인적분할해 지분 교환을 거쳐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통제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빠른 경영승계와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과감한 변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추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실시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의도가 어찌됐든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연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

전자는 실적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순현금은 증가하고 있었다”며 “이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충족하는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추가 상승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분석도 제기됐다. 과거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이 주가 부양책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집계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취득한 사례는 모두 10회이며 이중 자사주 취득 기간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3차례에 그쳤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시행된 자사주 취득 발표 및 취득 기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사주 취득이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못했다”며 “수급 측면에서 자사주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매수보다는 매도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홍콩 거래시스템 원클릭 연결 코스콤 ‘유동성 허브’ 각광

별도의 개별 통신회선 설치 없이
단일 회선으로 다수 증권사 연결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거래 가능

코스콤이 후강통 시대를 맞아 ‘Liquidity Hub(유동성 허브)’로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동성 허브’는 아시아금융시장 중심인 홍콩의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이 각각 한국 거래시스템과 홍콩 거래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코스콤이 주문회선, 네트워크 장비, IDC, 주문관리시스템(OMS) 등 IT인프라를 중개·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후강통(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간 교차거래 허용) 제도’에 따라 유동성 허브를 통해 중국 주식을 보다 손쉽게 매매할 수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의 투자자들이 한국과 홍콩 거래시스템에 접속하려면 개별 통신회

선을 별도로 설치해야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웠지만, 이번 유동성 허브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조영민 코스콤 해외영업팀장은 “유동성 허브는 개별 통신회선의 설치 없이 단일 국제회선으로 다수의 국내 증권사로 연결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우수한 속도 경쟁력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코스콤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싱가포르, 일본 등지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BT와 제휴강화를 통해 고객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여개 금융기관에 접속할 수 있는 코스콤의 자본시장 주문중개허브인 STP-HUB서비스, 고객원장 관리시스템인 PowerBASE 등과 연계 가능한 추가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FNC엔터 공모 청약

577.37대 1 ‘홍행대박’

청약증거금 2조2633억원

지난 2011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상장 이후 3년 만에 공모 시장에 등장한 엔터주로 관심을 모은 FNC엔터테인먼트가 일반공모 결과, 경쟁률 577.37 대 1을 기록했다. 와이지의 560 대 1을 넘어섬에 흥행에 성공했다.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은 27일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28만주 일반공모에 1억6166만2860주가 청약 접수돼 최종 경쟁률이 577.37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모가는 2만8000원으로, 청약증거금(공모가의 50%)은 2조2633억원이 몰렸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FNC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과 중국 시장 공략 가속화 등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2월 4일 상장 후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FNC엔터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총 392억원의 자금을 중핵권 시장 진출 및 드라마 자체 제작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FNC엔터의 한성호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엔터업계가 SM·YG·JYP엔터 등 3강 구도로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더 뒤처지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상장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이 FNC엔터의 사업 역량 강화 및 국내 정상급 기획사로서 입지를 굳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코넥스 시장경보·예방조치 강화

경보범위 코스닥 수준 확대... 불공정거래 징후 계좌 단속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넥스시장의 개설초기 대비 상당히 변화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 기준을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코넥스 시장에는

시장경보 제도가 보강된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등 단계별로 지정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 과열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해 투자주의 등의 시장경보 일 부 항목을 유예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거래소는 소수지점·계좌 거래 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등을 평가해 투자주의 항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투자경고는 기존과 같이 5일간 60% 이상, 15일간 100% 이상 장·단기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해당된다. 투자위험은 장·단기 주가상승(5일간 45% 이상, 15일간 75% 이상) 및 매관여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매매 양태상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경고(유선·서면)’→‘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투자자문사 “올해만 같아라”

올 상반기 순이익 516억원
지난해보다 173%나 늘어
상위 10개사 ROE 5%P ↑

올해 상반기 전업투자자문사들의 순이익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투자자문사 166개사의 지난 4-9월 순이익은 5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은 3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억원 증가했고 중소형사들은 131억원으로 226억원 늘었다.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전년에 비해 10개사 감소한 79개사로 전체 회사의 52%를 차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연환산)은 16.8%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자기자본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10개사의 ROE는 34.6%로 전년동기대비 5.0%포인트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수익은 758억원으로 130억원(20.7%) 증가했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605억원으로 18억원(2.9%) 감소했으며 △증권투자로는 432억원의 이익을 실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억원(84.6%) 증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온정 듬뿍 담아”... KRX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KRX(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26일 KRX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인식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11월 마지막주를 ‘2014년 KRX 사회공헌주간’으로 선포하고 KRX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약 120여명의 KRX 임직원이 참가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소재의 총 8곳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배식 봉사, 시설환경 개선, 난방용품 전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 국제금융단지인 거리에서는 ‘2014

KRX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KRX재단임직원, 대학생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총 8000포기(총 2만 4078kg)의 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저소득·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경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거래소와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견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현 기자 yhssoo@



제대로 된 현관문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 안... 문 대신 막아놓은 모기장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한겨울이면 거실에 얼음이 어는 이곳에서 진우(5세, 가명)와 할머니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저거 우에 살런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에도 금세 그렇그런 눈빛이 되어 할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추위에 떨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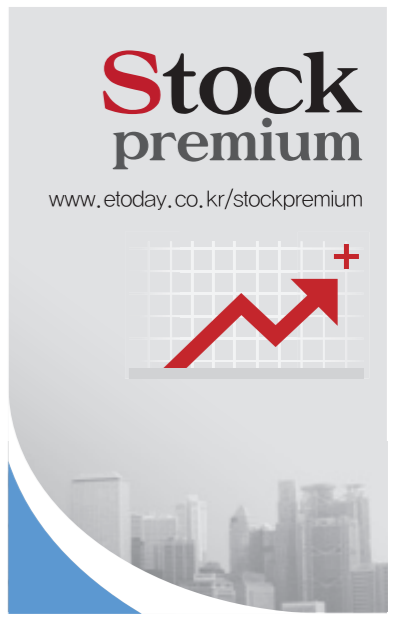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할머니 품의 온기만으로 긴 겨울 밤을 견뎌야 하는 진우에게 당신의 체온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 신청 (매월 3만원)
1599-0300

정기후원은 굿네이버스 54개 지부, 97개 사업장을 통해 진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빈곤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에 사용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제이브이엠, 中 ‘약발’ 받나

약국자동화 시스템 국산화로 북미·유럽 점유율 1위
中 수요 늘며 수혜예상...국영기업 시노팜 독점 계약도

제이브이엠이 중국 시장 및 고령화 시대 가속화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중국 내 약국자동화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북미 다음으로 매출 주요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시장 전체로 봐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규제 법규 등의 변화로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브이엠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정제 포장시스템(ATDPS)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동정제 포장시스템은 약사가 일일이 약을 조제해 포장하지 않고, 컴퓨터에 조제 방법만 입력하면 알아서 약을 포장까지 해주는 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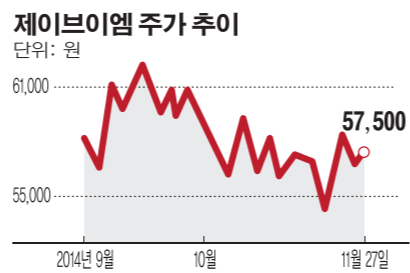
제이브이엠은 1998년 말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일본이 장악했던 국

내 시장의 90% 이상을 대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시장을 제외한 북미, 유럽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800억원에 이어 올해 10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약국자동화 시스템의 사용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실제 교체기간은 기술의 변화, 약국의 매출성장, 인건비 상승에 따라 약 4-6년을 주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사용기간 동안 MRO(Maintenance Repairs & Operating)의 지속적인 매출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MRO 매출은 당사와 고객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향후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시장인 중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국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모델로



개혁 중이다. 또 중국 국영기업체인 시노팜과 중국시장 내 독점 계약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내시장에서도 내년 1분기 ADC(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 신제품 내수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병원별 ADC 맞춤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ADC 시범평가 중 한국 10대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ADC 미보급 상태로 상급 종합병원 잠재 시장만 4318억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ADC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될 경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조이시티, 日 트로제와 게임 만든다

‘새도우 오브 이클립스’ 공동개발
‘달과 그림자’ 활용 모바일 타이틀



조이시티는 일본 유망 개발사 트로제와 모바일 게임 ‘새도우 오브 이클립스(Shadow of Eclipse)’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Shadow of Eclipse’는 국내외 유저들로부터 인정 받은 무협 활극 액션 ‘달과 그림자’의 콘텐츠를 활용한 모바일 타이틀로, 기존에 없던 참신한 게임성과 개성있는 그래픽으로 일본 유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트로제(TROOZE)는 일본 대표 게임사 캡콤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 설립한 저력있는 게임 업체다.

공동대표 3인 모두 캡콤의 유명 타이틀을 제작한 핵심 개발자들로서 폭넓은 업계 경험과 수준급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테즈카 타케시 대표는 스트리트파이터, 파워스톤 등 캡콤을 대표하는 80년대 아케이드 게임과 콘솔 게임을 직접 개발했 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업 부문 총괄직을 역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호

러 게임 ‘바이오하자드’를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한 바 있다.

트로제의 첫 번째 모바일 게임 계약 타이틀 Shadow of Eclipse는 일본 현지 문화와 유저 성향을 고려한 현지화 콘텐츠를 보강해 내년 중 출시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이시티 조한서 상무는 “게임 강국인 일본에서 수많은 성공작을 배출한 주역들로 구성된 ‘트로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발사”라, “양사가 보유한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힐튼 남해 ‘한국 최고 호텔’

2014 월드 골프 어워드 선정

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힐튼 남해 골프 & 스파 리조트(이하 힐튼 남해)가 2014 월드 골프 어워드(World Golf Awards)에서 선정된 ‘한국 최고의 골프 호텔’에 이름을 올렸다.

월드 골프 어워드는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올해 런칭한 시상식으로 지난 11월 15일 포르투갈의 콘라드 알가르베에서 열렸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자랑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힐튼 남해는 지난 10월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한국 최고의 리조트’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11월 월드 골프 어워드에서 ‘한국 최고의 골프 호텔’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월드 트래블 어워드는 1993년 시작되어 올해로 21년째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 세계 여행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자랑한다.

힐튼 남해 총지배인 에스퍼 바흐 르센은 “지난 달 월드 트래블 어워드 수상에 이어 또 한번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굉장히 행복하다. 전해의 자연 경관, 좋은 시설과 힐튼 남해의 특별한 서비스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해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승에 기자 sysy@

공시돌보기 ISC,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분거래’

정영배 대표, 지분 2% 기관에 블록딜로 넘겨

52억 현금화...기관은 무상증자로 물량 받아

ISC가 무상증자 실시를 앞두고 회사 최대주인 정영배 대표가 보유 지분 2% 물량을 기관에게 블록딜로 넘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사물인터넷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ISC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 대표는 52억원가량을 현금화했고, 기관은 무상증자로 인해 프리미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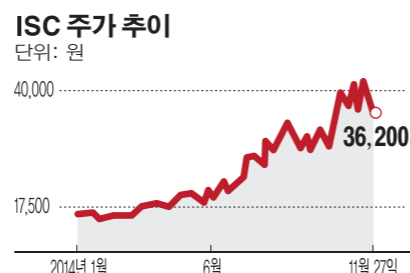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보유 중이던 ISC 주식 15만주를 트러스투자자산운용 등 기관들에게 시간외 매매로 팔았다. 매각가는 주당 3만4650원으로 정 대표는 51억9750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이 거래로 정대표의 지분율은 43.26%에서 41.26%로 줄었다.

이후 24일 ISC는 보통주 1주당 0.3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발행신주는 287만8840주, 신주배정기준일

은 오는 12월 9일이다. 현재 정대표의 보유 물량이 339만4064주(41.26%)인 점을 감안하면 약118만주의 주식을 늘릴 수 있고 이번에 물량을 사들인 기관들 역시 총 5만2500주를 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주당 3만4650원에 총 15만주를 사들였고 무상증자 물량까지 합쳐 총 20만2500주를 보유할 수 있게 돼 33%가량의 프리미엄을 누리게 된 셈이다.

이 거래에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신수인수권 행사를 통해 33만7212주 늘렸다. 주당 행사가는 1만5124원이다. 이는 작년 7월 ISC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BW의 일부로 발행 직후 60억원 규모의 워런트를 주당 630원 총 2억4000만원에 정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되사들였다.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업체인 ISC는 최



근 사물인터넷 바람을 타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였다. 올해 초 1만6000원을 오르내리던 주가는 11월14일에는 4만2950원까지 뛰어올랐다. ISC가 사물인터넷 수혜주로 주목받은 이유는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해서는 사물에 따라 다양한 칩이 개발되고 양산되는 칩 모델 또한 증가해 테스트 소켓의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흥국증권은 최근 ISC의 올해 매출액을 작년보다 47% 증가한 782억원, 영업이익 역시 39% 증가한 283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ISC 관계자는 “의미 있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투자를 위해서 블록딜로 넘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장사 잘한 와이드온라인

3분기 영업손실 7억 왜?

‘드래곤을...’ 마케팅비용 탓

“4분기부터 흑자 전환 확실”

와이드온라인은 올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76억원, 영업손실 7억원, 당기순손실 9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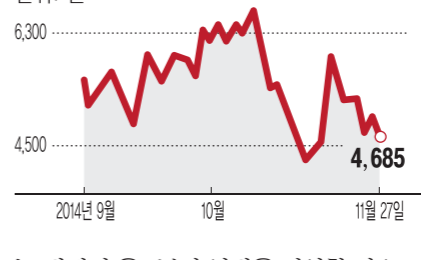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은 34% 상승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40%, 64% 감소한 수치다.

회사 관계자는 “대폭적인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이유는 3분기 최고 히트작인 ‘드래곤을만나다’의 론칭 초기 대규모 마케팅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래곤을만나다’는 서비스 시작부터 꾸준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유저 풀과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4분기부터는 흑자전환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1월 일본에서 론칭한 ‘알비온전기’가 현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익성이 보장된 자체 개발작이라

와이드온라인 주가 추이



는 점에서 올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비온전기’는 일본 및 동남아시아 최대의 플랫폼인 라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순차적으로 론칭할 계획이다.

와이드온라인 박재영 CFO는 “3분기 매출은 지난 분기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양적 성장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알비온전기 외에도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서비스 예정인 자체 개발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총 5종이 준비돼 있는 만큼 외형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FIND YOUR SIGNATURE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 2,820만 화소 BSI CMOS 이미지 센서 • 초고속 연사(초당 15fps)와 초고속 AF(0.055초) • 고화질 4K/UHD 동영상 촬영 •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조하세요.

